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

|일 시| 2025년 3월 26일(수) 14:30~17:00

|장 소|  가재울청소년센터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



|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 14:30 ~ 17:00
 | 장 소 | 가재울청소년센터 D 스테이션
 |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관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PROGRAM

| 사회 |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분석평가센터장)

시간	내용	
14:30-14:35	개 회	
14:35-14:45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45-15:20	주제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15:20-15:40	사례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 관리 모형 및 개선 방향 ✓ 서 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장)
15:40-15:50	휴식 및 자리준비	
15:50-17:00	종합토론	좌 장 김영근 (인제대학교 부교수) 토론자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김혜은 (대구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17:00	폐 회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



Contents

■ 주제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1

-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 사례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 관리 모형 및 개선 방향 23

- 서 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장)

■ 종합토론

-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65
- 김혜은 (대구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71
-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77
-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83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9
-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95

주제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홍일 박사

연구 배경

- 최근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정책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고립·은둔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 특성 파악 필요
- (2023년 사회조사)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 이를 13~18세 청소년 인구 (약 270만 명) 적용 시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
-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2023) 응답자의 **24%가 10대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했음**을 보고

**조사
개요**

- 연구주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4.1월~10월
- 조사기간 : 온라인 웹조사(6.11~8.31)/심층면접 조사(8.9~9.30)
- 조사대상
 - (1차 사전조사) 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 (2차 본조사) 사전조사 참여자 중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으로 판별된 대상자 중 2차 본조사 참여 희망자
- 조사항목
 - (1차) 삶의 만족도, 고립·은둔 경험, 사회적 관계 등
 - (2차) 고립·은둔 이유와 시기, 생활, 건강,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지지, 상황인식, 탈고립·은둔 인식, 지원 등
- 조사방식 : 온라인 웹조사 및 심층면접(20명)

조사참여현황

(단위:명)

1차 조사(스크리닝)*				2차 조사(본조사)		
링크 접속 건	조사 참여자	응답 완료자	조사 대상자	조사 동의자	응답 완료자	도움 희망자***
88,077	24,748	19,160	5,484	4,789	2,139**	592

* 스크리닝 : ① 외출빈도 및 장애여부에 따라 은둔상태 확인
 ② 사회적 관계, 학업상태, 지역사회 등에 대한 문항점수에 따라 고립상태 확인

** 은둔청소년 51.9%(1,110명) / 고립청소년 48.1%(1,029명)

*** 고립·은둔 청소년 중 도움을 희망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

주요 연구결과 : 1차 사전조사

(단위:명/%)

구분		n=19,160 (100.0)	응답자 특성(유형별)			
대상자 유형	해당없음	13,676 (71.4)	9~12세	2873	21.0	15.0
			13~18세	9493	69.4	49.5
			19~24세	1310	9.6	6.8
	고립청소년	2,412 (12.6)	9~12세	268	11.1	1.4
			13~18세	1440	59.7	7.5
			19~24세	704	29.2	3.7
	은둔청소년	3,072 (16.0)	9~12세	341	11.1	1.8
			13~18세	1815	59.1	9.5
			19~24세	916	29.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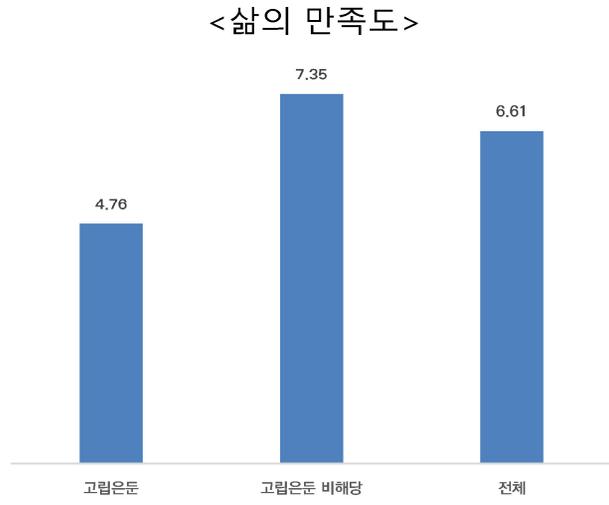
주요 연구결과 : 1차 사전조사

(단위:명/%)

구분		n=19,160 (100.0)	응답자 특성(연령별)			
연령	9~12세	3,482 (18.2)	해당없음	2873	82.5	15.0
			고립청소년	268	7.7	1.4
			은둔청소년	341	9.8	1.8
	13~18세	12,748 (66.5)	해당없음	9493	74.5	49.5
			고립청소년	1440	11.3	7.5
			은둔청소년	1815	14.2	9.5
	19~24세	2,930 (15.3)	해당없음	1310	44.7	6.8
			고립청소년	704	24.0	3.7
			은둔청소년	916	31.3	4.8

주요 연구결과 : 1차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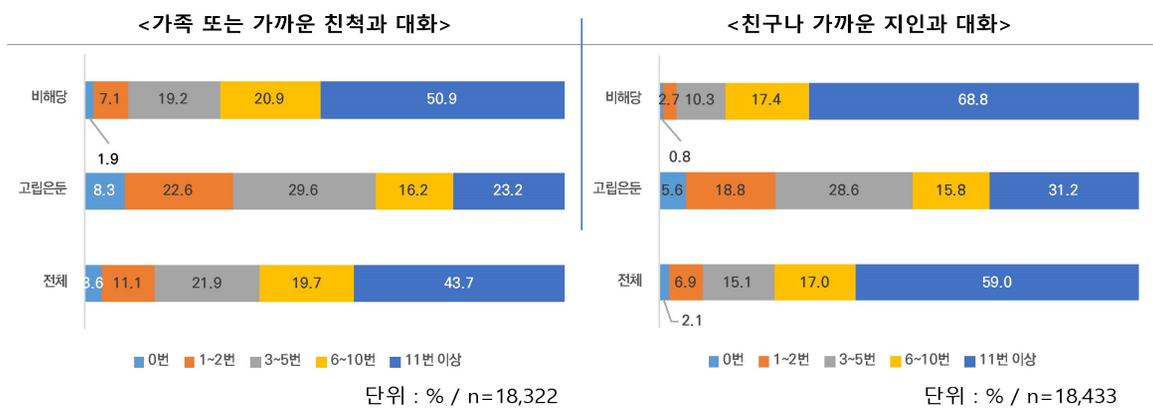
- 10점 척도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 6.6으로 나타남
-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4.8로 비해당 청소년(7.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단위 : 점 / n=19,160

주요 연구결과 : 1차 사전조사

<사회적 관계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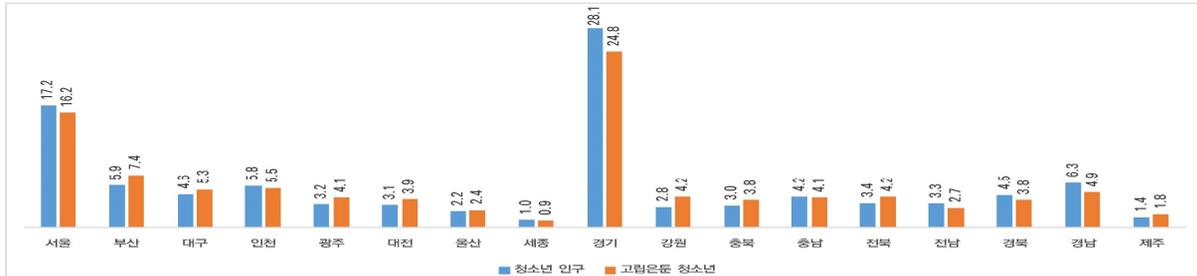


- 지난 2주 간 가족·친척과 대화한 경험이 없는 경우 8.3%(비해당 1.9%)
- 지난 2주 간 친구·지인과 대화한 경험이 없는 경우 5.6%(비해당 0.8%)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배경질문)

<대상자 거주지역>

단위 : % / n=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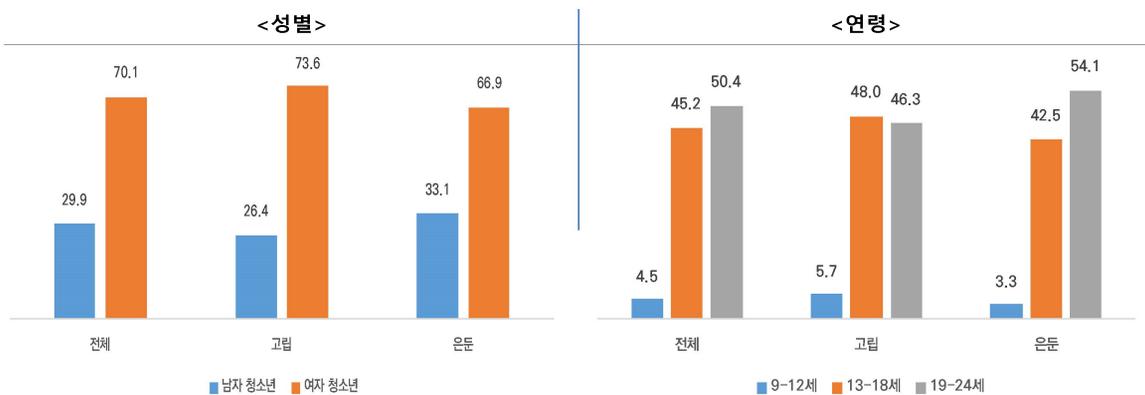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구 비율	172	5.9	4.6	5.8	3.2	3.1	2.2	1.0	28.1	2.8	3.0	4.2	3.4	3.3	4.5	6.3	1.4
대상자 비율	162	7.4	5.3	5.5	4.1	3.9	2.4	0.9	24.8	4.2	3.8	4.1	4.2	2.7	3.8	4.9	1.8

- 조사된 은둔·고립 청소년의 거주지역 조사 결과, 17개 시도 지역별 청소년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분포(인구비율: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행정안전부, 2024)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배경질문)

<성별 및 연령>

단위 : % / n=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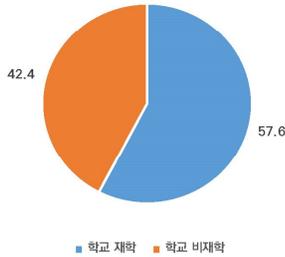


- 고립청소년 남 26.4%, 여 73.6%/ 은둔청소년 남 33.1%, 여 66.9%로 분포
- 고립청소년 13~18세 48.0% / 은둔청소년 19~24세 54.1% 가장 높게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배경질문)

<재학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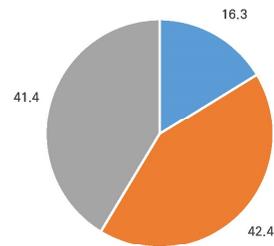
단위 : % / n=2,139



- 고립·은둔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비율은 42.4%

<경제수준>

단위 : % / n=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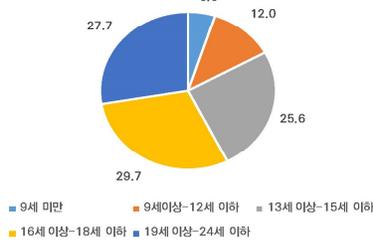


-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은 편으로 인식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은 16.3%, 중간 42.4%, 낮은편으로 인식하는 경우 41.4%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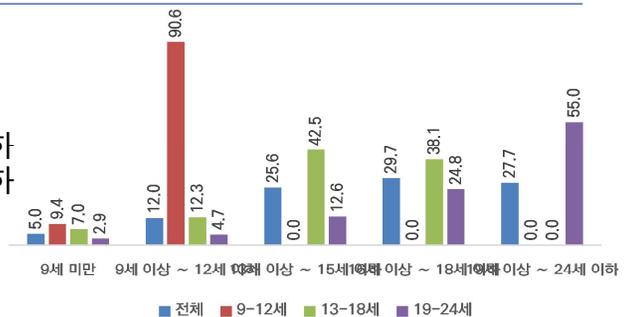
<고립·은둔 시작연령>

단위 : % / n=2,139



- 전체 고립·은둔 청소년 중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생활을 시작함
- 초등학생 시기에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경우도 17%(9세 미만 5%, 9세~12세 12%)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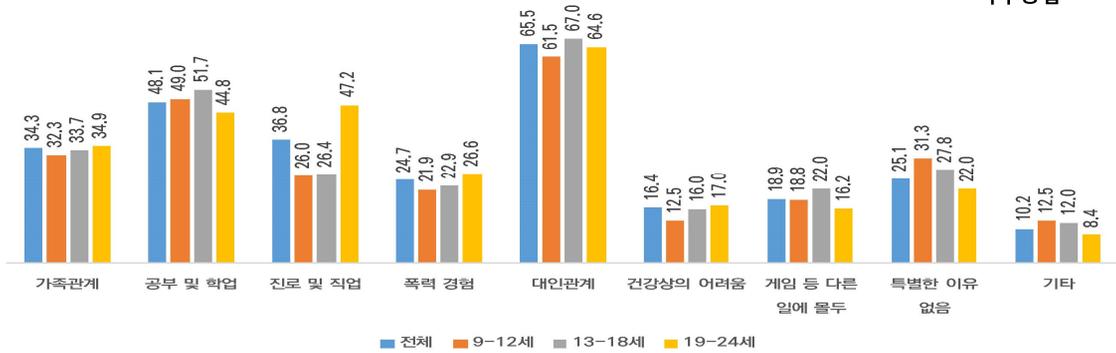
- 연령대별 시작연령
 - = 9~12세 : 9세 이상~12세 미만
 - = 13세~18세 : 13세 이상~15세 이하
 - = 19세~24세 : 19세 이상~24세 이하
 연령에 가장 많이 시작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경험)

<고립·은둔 시작 이유>

단위 : % / n=2,139
복수응답



- 전체 대상자의 가장 많은 65.5%가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고립·은둔의 이유로 응답(23년 청년조사 결과와 동일)
- 다음으로 공부 및 학업(48.1%), 진로 및 직업(36.8%), 가족관계(34.3%)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응답
- 19~24세의 경우 진로 및 직업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경험)

<재고립·은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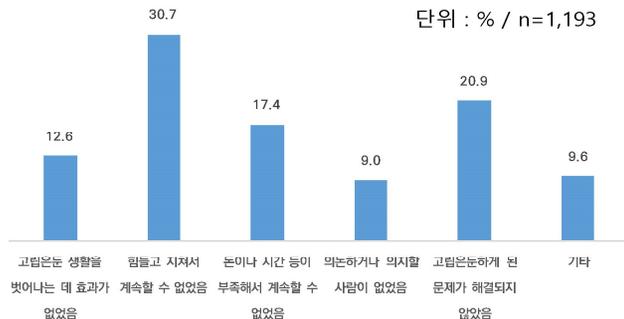
단위 : % / n=2,139



- 40%에 가까운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은둔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

<재고립·은둔 이유>

단위 : % / n=1,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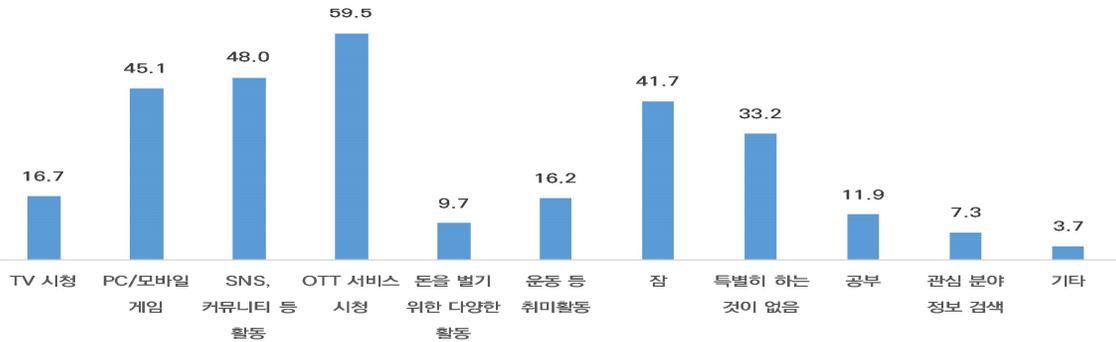


-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30.7%
- 그 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9%, 돈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17.4% 등으로 조사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고립·은둔하는 동안 주로 한 활동>

단위 : % / n=2,139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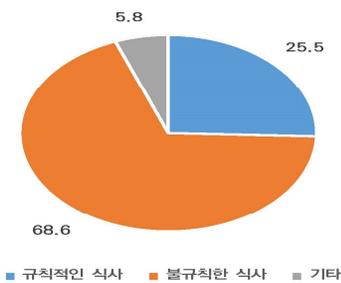


-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시청이 59.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SNS, 커뮤니티 활동(48.0%), PC/모바일 게임(45.1%), 잠(41.7%),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누워있기 등)(3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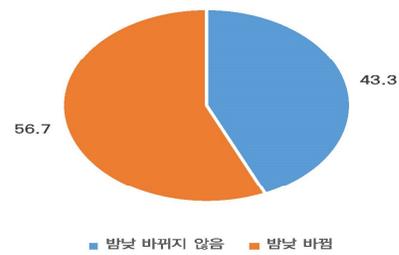
<일상생활>

<식사생활>



단위 : % / n=2,139

<밤낮 바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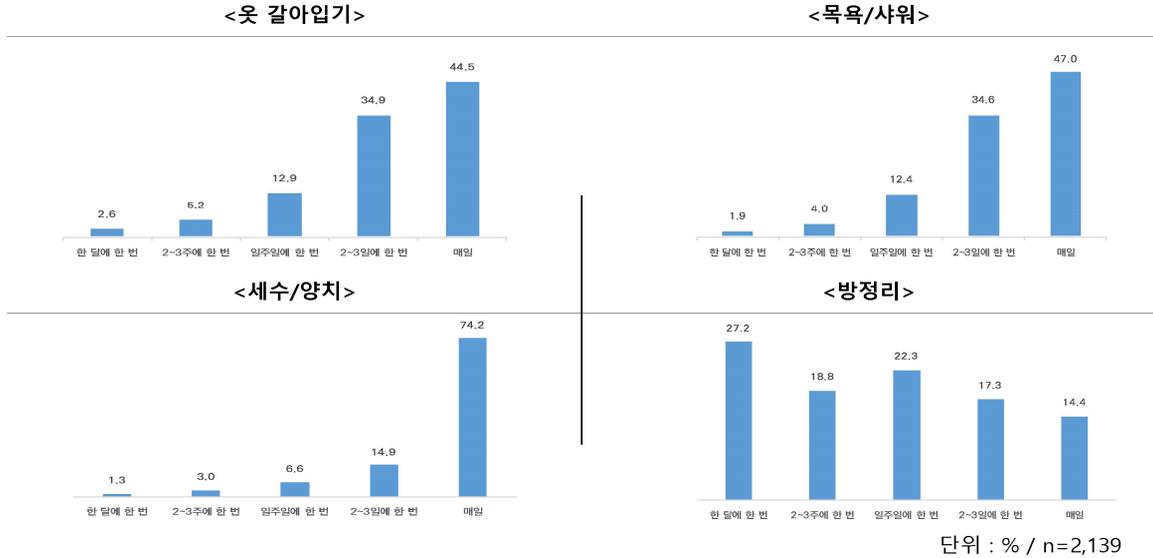


단위 : % / n=2,139

- 전체 고립·은둔 청소년의 68.6%가 불규칙적인 식사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고립·은둔 청소년의 56.7%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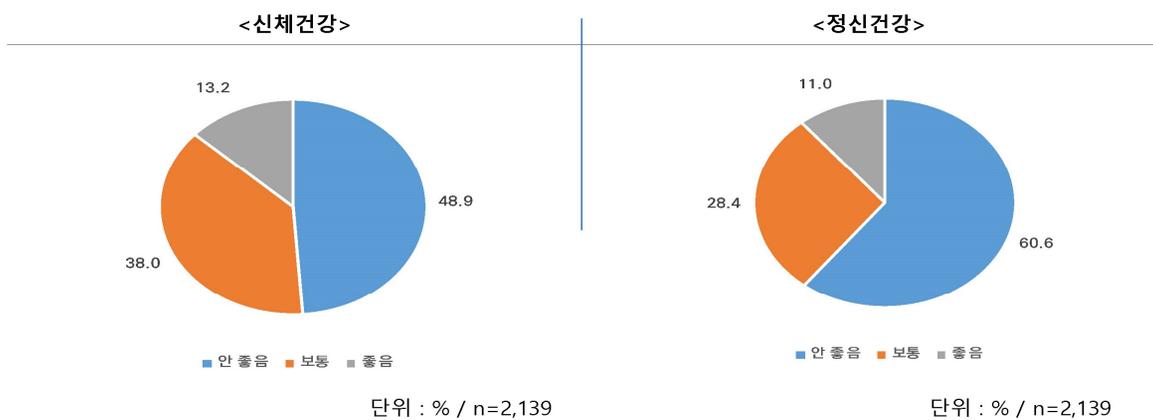
<자기관리> (한 달에 한 번+2~3주에 한 번 응답비율)



- 일주일 이상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7.8%, 목욕/샤워를 하지 않는다 5.9%, 세수/양치를 하지 않는다 4.3%,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는다 46.0%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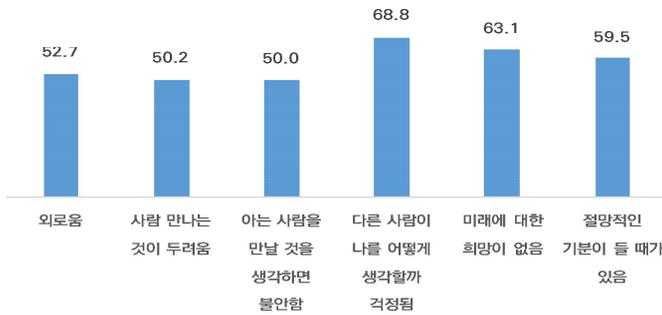


- 자신의 신체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8.9%,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6%로 높게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적 어려움>

단위 : % / n=2,139



- 지난 7일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68.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63.1%
- 외로움 52.7%, 두려움 50.2%, 불안함 50.0%, 절망적인 기분 59.5%

- 학교 친구들과 관계 형성에 미숙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점점 소심해지는 자신을 느낌.

"그냥 어렸을 때, 친해지려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 결국 저를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느낌...그것도 그렇고, 초등 학교 때도 거의 친구가 없고 혼자 있었거든요. 계속 학교에서도 한마디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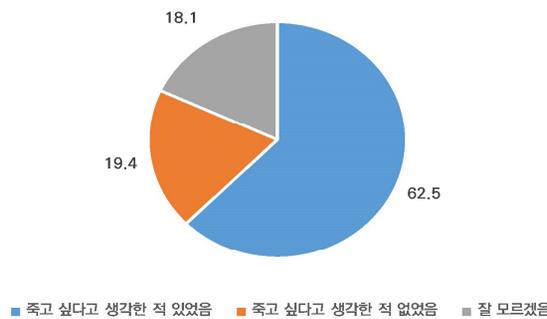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 그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 가지고, (중략) 뭐 혼자 울면서 이제 계단에 앉아가고 그랬던 적도 있고.."

"왜냐면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혼자 방에, 방안에 가서 울고 지쳐서 잠들고 이게 반복이었어서"

-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며, 무기력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음.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단위 : % / n=2,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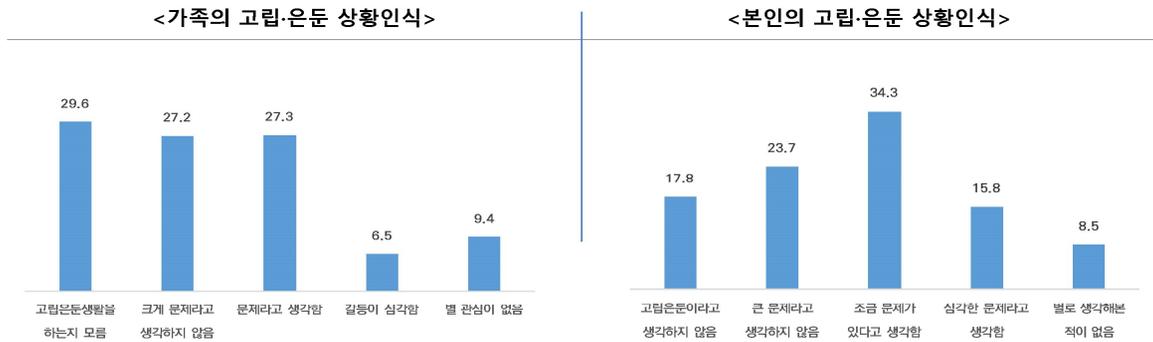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6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었음 19.4%, 모르겠음 18.1%

- 전체 청소년 자살생각 비율(가끔 32.3%, 자주 4.6%)* 대비 매우 높은 수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고립·은둔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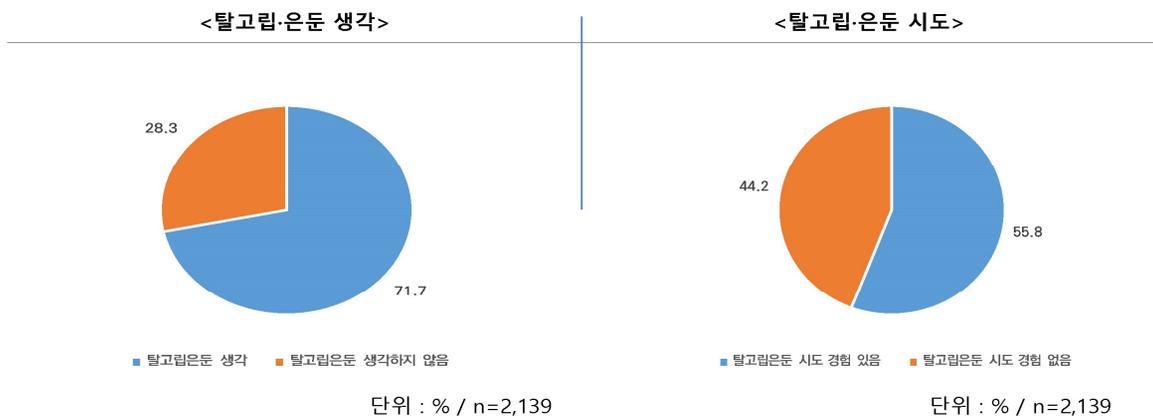
<고립·은둔 상황인식>



- 현재 본인의 고립·은둔 상태에 대해 가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지 모르거나(29.6%) 알더라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7.2%), 관심이 없는 경우(9.4%) 등 인식도가 낮게 나타남
- 스스로의 고립·은둔 상태에 대해 본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3.7%), 고립·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17.8%),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8.5%) 것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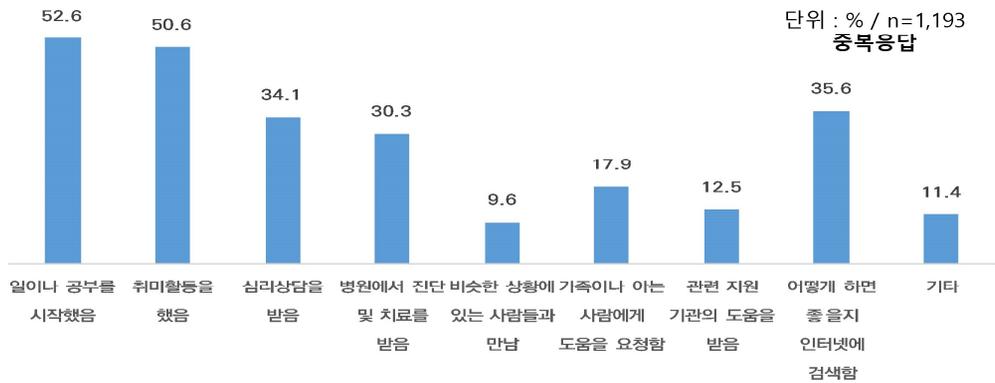
<탈고립·은둔 생각/시도>



- 전체 고립·은둔 청소년 중 71.7%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며, 55.8%는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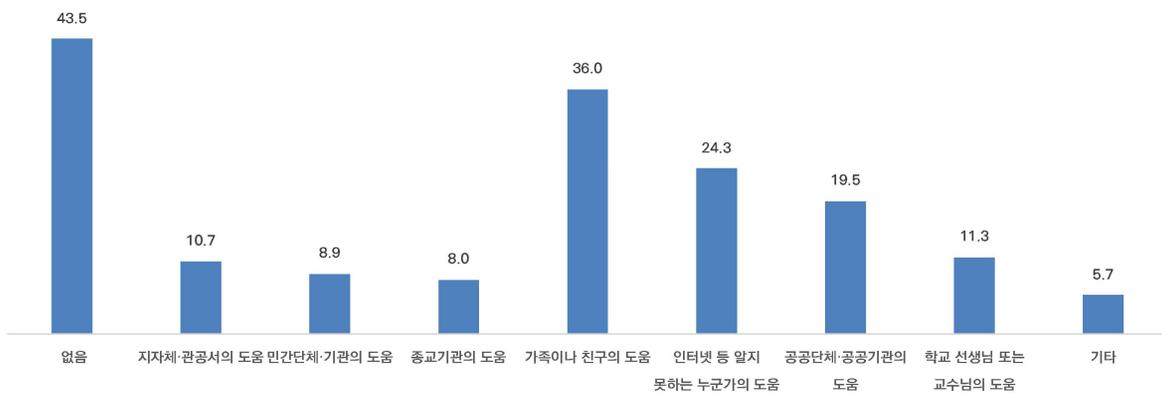
<탈고립·은둔 노력>



- 탈고립·은둔을 시도해본 응답자 1,193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보았는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공부를 시작했음(52.6%), 취미활동을 했음(50.6%), 인터넷에 검색함(35.6%) 등이 높게 나타남
- 주로 혼자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높게 응답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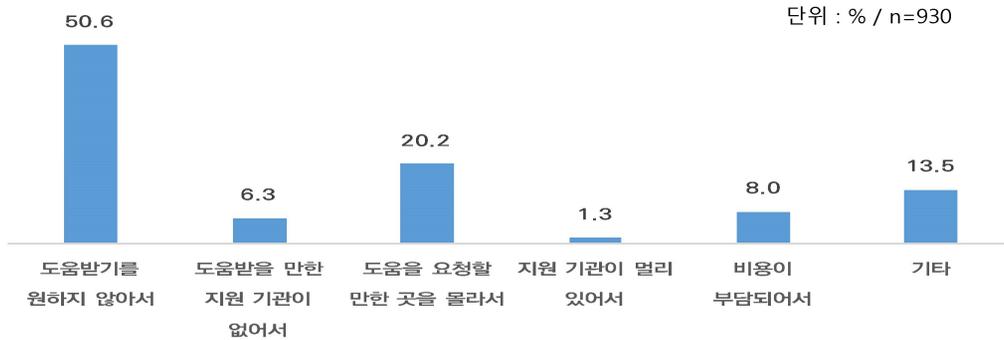
<탈고립·은둔을 위해 받은 도움>



- 탈고립·은둔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받은 도움 없음이 43.5%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36.0%),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24.3%), 학교·박청소년센터 등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19.5%) 등의 순
- 공공영역 보다는 개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탈고립·은둔 도움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43.5%(930명)을 대상으로 탈고립·은둔을 위해 도움받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50.6%),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20.2%), 비용이 부담되어서(8.0%),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 지원기관이 없어서 등 지원 기관과 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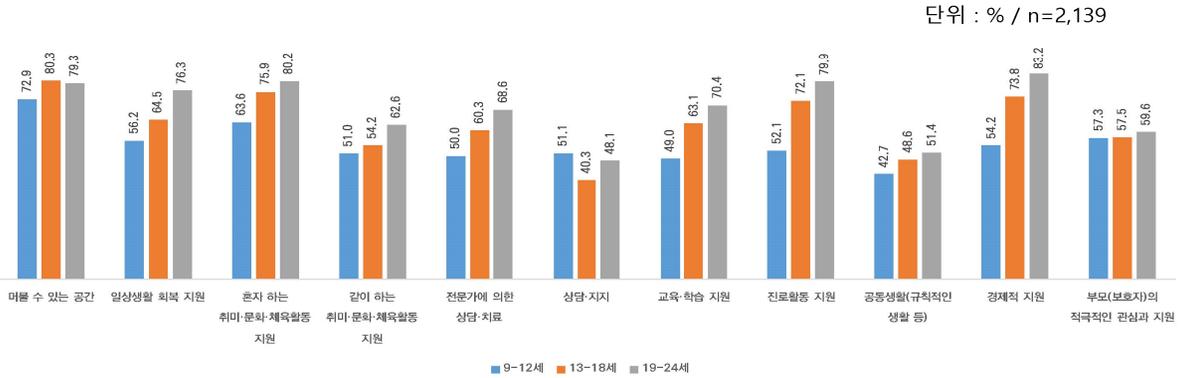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탈고립·은둔 도움을 원하지 않음>

-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 특성 파악을 위해, 원하는 집단과 원하지 않는 집단을 나눈 뒤, 성별, 연령대, 고립·은둔 여부 및 인정 여부, 고립·은둔원인, 기간, 재고립·은둔 여부와 횟수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 성별, 연령대, 재고립·은둔 횟수를 제외한 고립·은둔여부 및 인정 여부, 고립·은둔 원인, 기간, 재고립·은둔 여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고립은 41.0%, 은둔은 45.8%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R^2=4.912, p<.05$)
- 고립·은둔을 인정하는 경우 40.8%, 인정하지 않는 경우 47.1%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R^2=8.616, p<.01$)
- 가족, 학업, 진로, 가정 및 학교폭력, 대인관계, 건강이 원인인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응답이 높았으나 "게임 등 다른 일에 몰두", "특별한 이유 없음"의 경우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응답이 높음($R^2=55.892, p<.001$)
- 고립·은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응답비중이 높지만, 3개월 이상이 되면서 도움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R^2=19.580, p<.01$)
- 고립·은둔이 처음인 경우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45.5%이며 재고립·은둔의 경우 40.4%가 도움을 원하지 않음($R^2=5.606, p<.05$)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필요한 도움>



- 필요한 도움은 눈치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77.4%), 진로활동 지원(75.1%) 등이 높게 나타남
- 9~12세와 13~18세는 머물수 있는 공간을, 19~24세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담 지원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에 마음을 나눌 친구 '한 사람'이 필요함.

“보통 은둔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들 이유는 되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좀 제가 지내는 집이 확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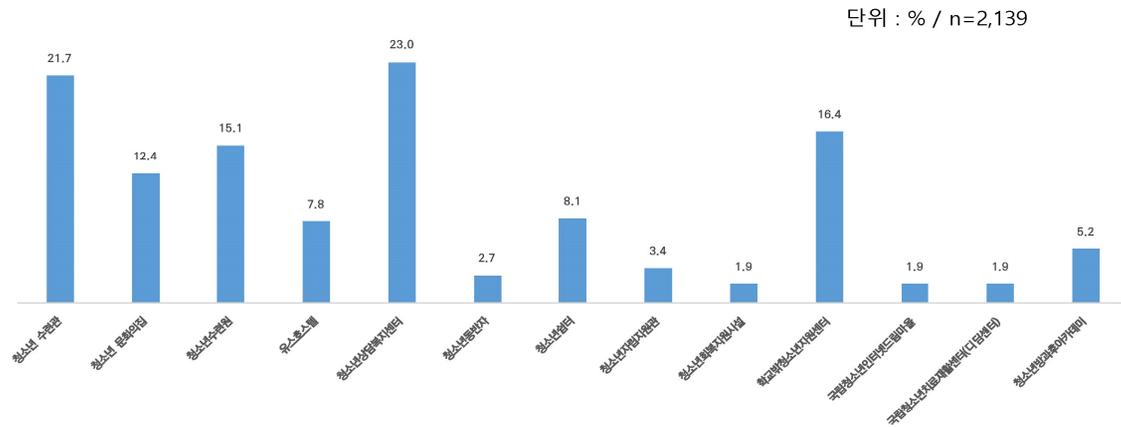
“전 지금 오픈채팅방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랑 비슷한 분들 좀 몇 명 계세요. 그래서 다들 되게 뭐...(중략) 뭐 다양하게...이제 뭐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오늘 뭐 할지 이제 소통하고 또 개인적으로 인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서로 도움받는 식으로.”

“겉으로는 되게 막 번질번질해 보이고 이런 애들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상담을 받아야 되는 데 못 받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중략) 근데 정말 심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되거든요. 그 힘들었던 얘기를 한 시간에 한 시간도 아니에요. (중략) 그러니까 이 회기를 좀 더 늘리고, 뭐 진짜, 진짜 좀 이 상담이 심리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진짜 좀 힘든 아이들”

“그냥 제 삶에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집에만 있다 보면은 정말 아무런 대화도 안 하거든요? 전화할 사람도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말만 해요. 그러다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중략)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가족보다 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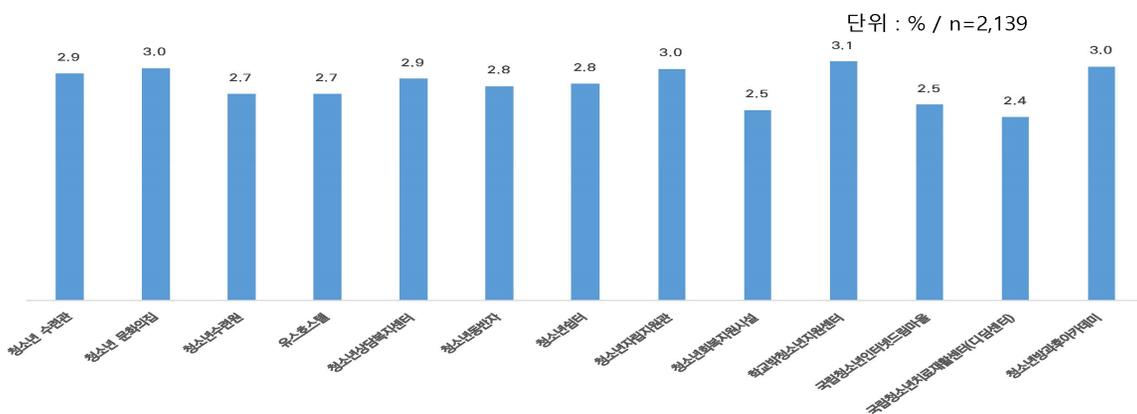
<청소년관련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0%, 청소년수련관 2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 : 2차 본조사(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시설 만족도>



-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만족도(min=1, max=4)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08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2점, 청소년문화의집 3.00점, 청소년자립지원관 2.99점, 청소년수련관 2.9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I. 중장기계획 마련 및 근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39.7%가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 혹은 재은둔 경험
- (필요성) 재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고립·은둔청소년 지원 중장기계획 필요
- (정책방안 1)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재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정책방안 2)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면서 재고립과 재은둔이 심화되지 않도록 청년기 청년미래센터 연계 강화

정책제언

I. 중장기계획 마련 및 근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조기발굴 실시

- (실태조사 결과) 12세 이전 고립·은둔 시작한 청소년 비율이 17.0%로 높은 수준임
- (필요성) 고립·은둔 청소년 위험 사전예측 및 조기 발굴이 요구됨
- (정책방안 1)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한 주기적 실태파악
 - 아동, 청소년 연령별 특성 파악을 위한 주기적 실태조사
- (정책방안 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고립·은둔관련 문항 추가
 - 고립·은둔 파악을 위한 최소문항 추가로 조기발견 및 모니터링
- (정책방안 3) 위(Wee)클래스,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한 학교 안팎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발굴

정책제언

Ⅱ.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방안 수립

가구 단위 치유 프로그램 개발·대응 필요

- (실태조사 결과)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 비율 90% 이상
- (필요성)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거 가구원 지원정책 필요
- (정책방안) 고립·은둔 청소년 가구지원을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계 지자체별 가족센터와 연계한 지원방안 개발·대응

정책제언

Ⅱ.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방안 수립

한국형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정책 수립

- (실태조사 결과 1) 고립·은둔 청소년은 비해당군보다 사회적 관계 양이 현저히 낮음
- (실태조사 결과 2) 청소년의 고립·은둔 이유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65.5%로 가장 높음
- (필요성) 청소년 관계형성 역량 제고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 확대 필요
- (정책방안) 한국형 사회적 처방 정책수립
 - (정의) 사회적 처방이란 약물 처방의 대안으로서 대인관계 맺기를 처방하는 방법
 - (예시) 영국: 사회적 처방활동가(Linkworker)를 통해 사회적 처방을 제공

정책제언

Ⅲ.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고립·은둔 청소년 누리집 및 지역자원맵 개발

- (실태조사 결과 1) 고립·은둔 청소년 71.7%.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음
- (실태조사 결과 2) 고립·은둔을 벗어나기 위하여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청소년이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50.6%), 몰라서 (20.2%), 비용 부담(8.0%) 등이었음
- (필요성)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접근성 높은 정보제공 필요
- (정책방안 1) 연령, 성별, 지역 등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책 등을 안내 및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원맵을 누리집에서 제공
- (정책방안 2)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한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확대 및 광역 거점센터 신설을 통한 접근성 대폭 강화

정책제언

Ⅲ.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확충

- (실태조사 결과 1)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 42.4%
- (실태조사 결과 2) 고립·은둔 청소년 중 79.5%는 '눈치를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함
- (필요성) 학교 밖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활동공간 확충이 요구됨
- (정책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공간 제공
- (정책방안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정책제언

IV. 고립·은둔 청소년지원 법률 및 조례 제정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전국 확대 지원
- (필요성 1) 고립·은둔 지자체 조례의 연령이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청소년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필요성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미비 지자체가 여전히 많음
 - 2024년 5월 기준 36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정책방안 1) 초기 청소년기를 포괄할 수 있는 기존 조례연령의 확대
- (정책방안 2)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단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 지원
- (정책방안 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및 부처 협력 강화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 관리 모형 및 개선 방향

- 서 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 관리 모형 및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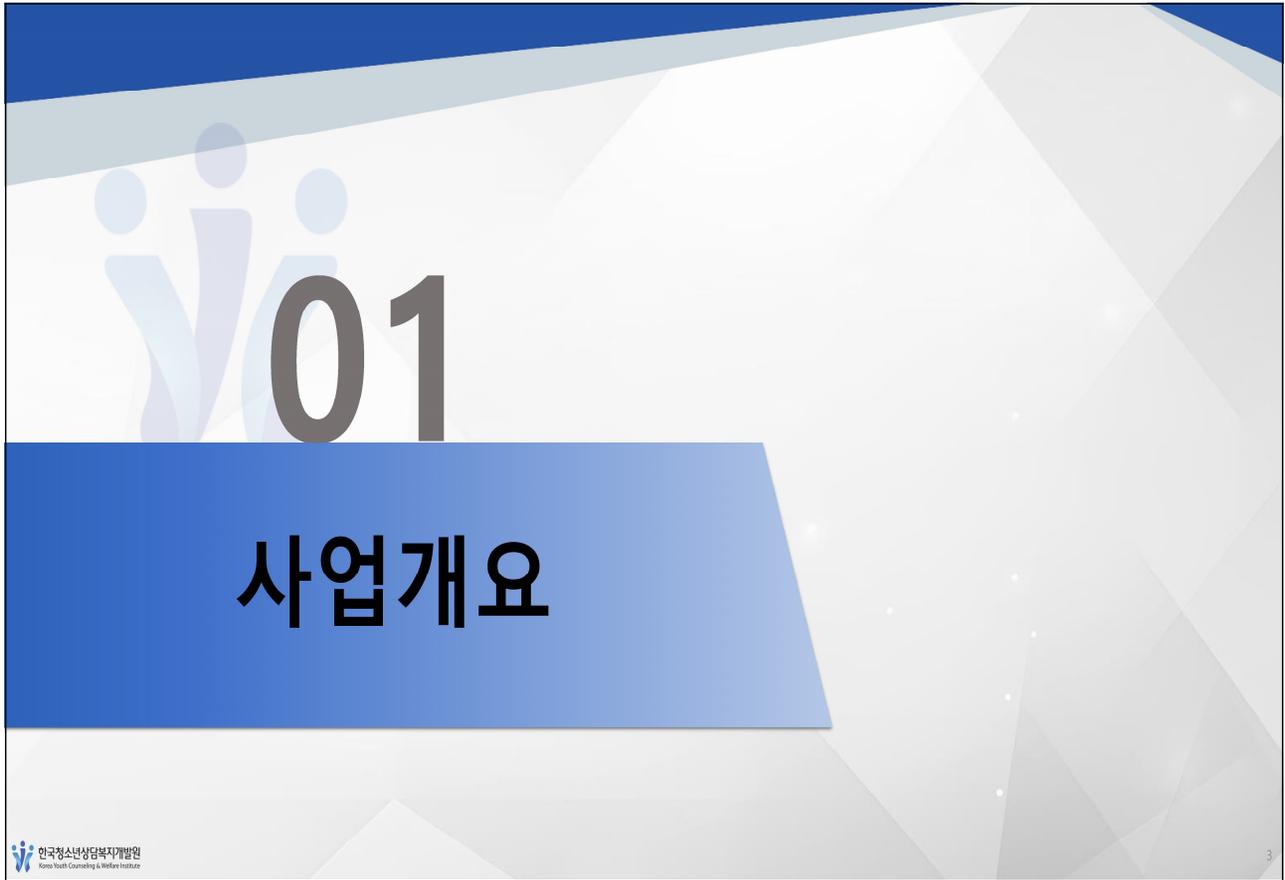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 본부장 서미 |

목 차

1 사업개요	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3 '24년 사업 추진 현황	4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



01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01



공적 서비스 미연결 학교 밖 청소년 지속 발생

- 학교 중단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결되지 못하여 고립·은둔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 지속 발생
- '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연계 청소년 중 6.1천명 센터 미등록

02



청소년의 고립·은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고립·은둔 청년의 24%가 10대부터 고립·은둔 시작(보건복지부, 2023)
- 사회적관계·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13~18세 비율 지속 증가 ('21년 4.6% → '23년 5.2%) (통계청, 2023)

03



고립·은둔 장기화로 사회적 손실 발생

- 청년 고립으로 연 7조원 비용 발생 (청년재단, 2023)
- 10대 때부터 고립·은둔 예방 및 장기화 차단 필요

01
사업개요

목적

추진근거

- ✓ 우리사회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청소년의 고립·은둔 장기화 예방을 위한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 ✓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5

01
사업개요

사업대상

- ✓ 현재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유형 분류
(*출처 : 차주환 외(2024). 은둔청소년 판별을 위한 스크리닝 척도 개발)
-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 ~ 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단, 언어적 소통 가능한 경우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 포함 가능)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활용 유형 분류

구분	내용
고립형	'사회단절·고립', '심리적 회피', '생활습관' 3가지 중 요인 중 2가지 요인의 점수가 절단점 이상인 경우
은둔형	'사회단절·고립', '심리적 회피', '생활습관' 3가지 중 요인의 점수가 모두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요인별 절단점 : 사회단절·고립 요인(12점), 심리적 회피 요인(14점), 생활습관 요인(6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6

01
사업개요

사업 추진 지역(25년)

서울 (4)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

경기 (2)
수원시, 성남시

대구 (3)
동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1)
포항시

광주 (1)
광역시

경남 (1)
광역시

운영센터 12개소

전담인력 36명

상담 : 29명
학습 : 7명

01
사업개요

추진체계 및 역할

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 사업안내(지침) 마련 및 관리
- 예산지원 및 관련제도 정비
- 중앙지원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관리 등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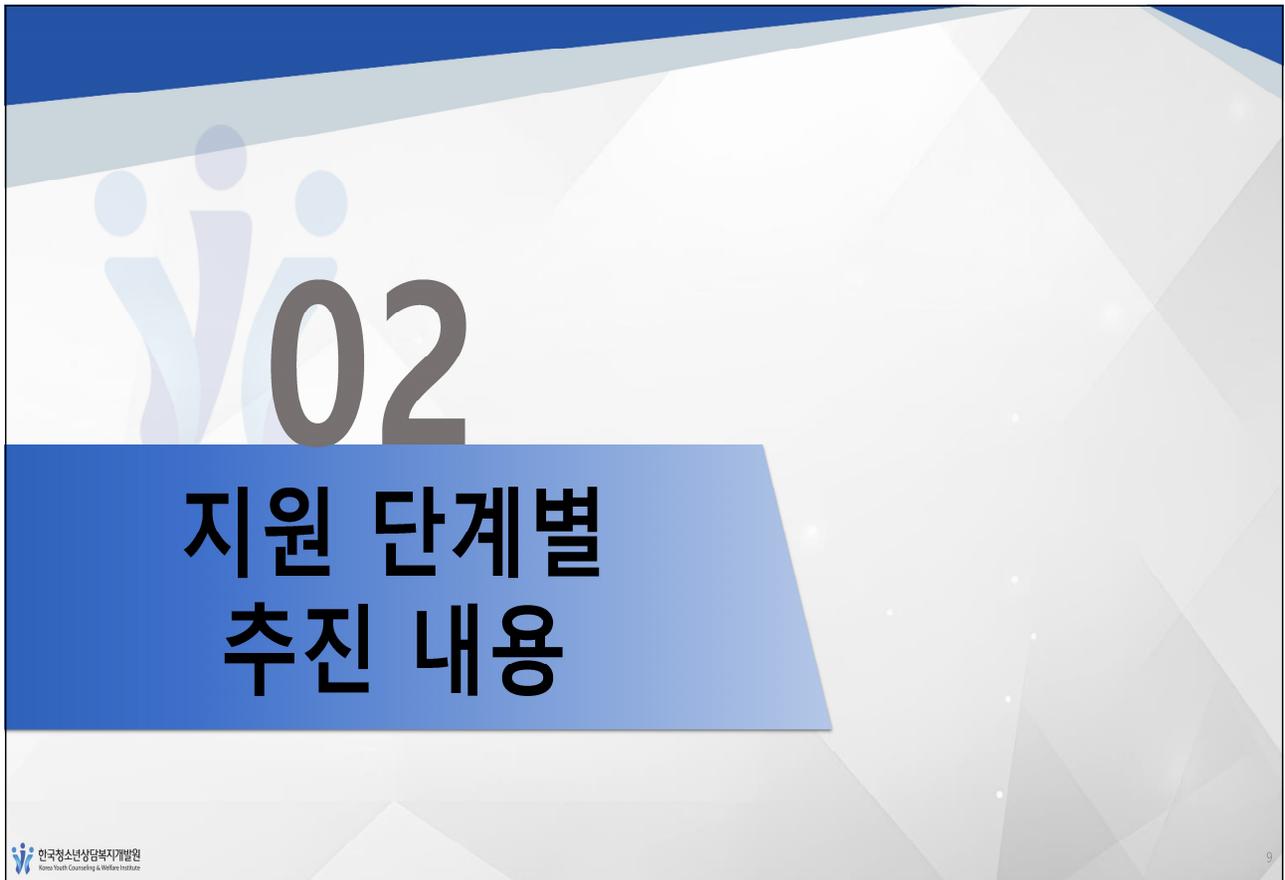
- 관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리
-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총괄
- 지역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사업 홍보 및 자원 연계
-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중앙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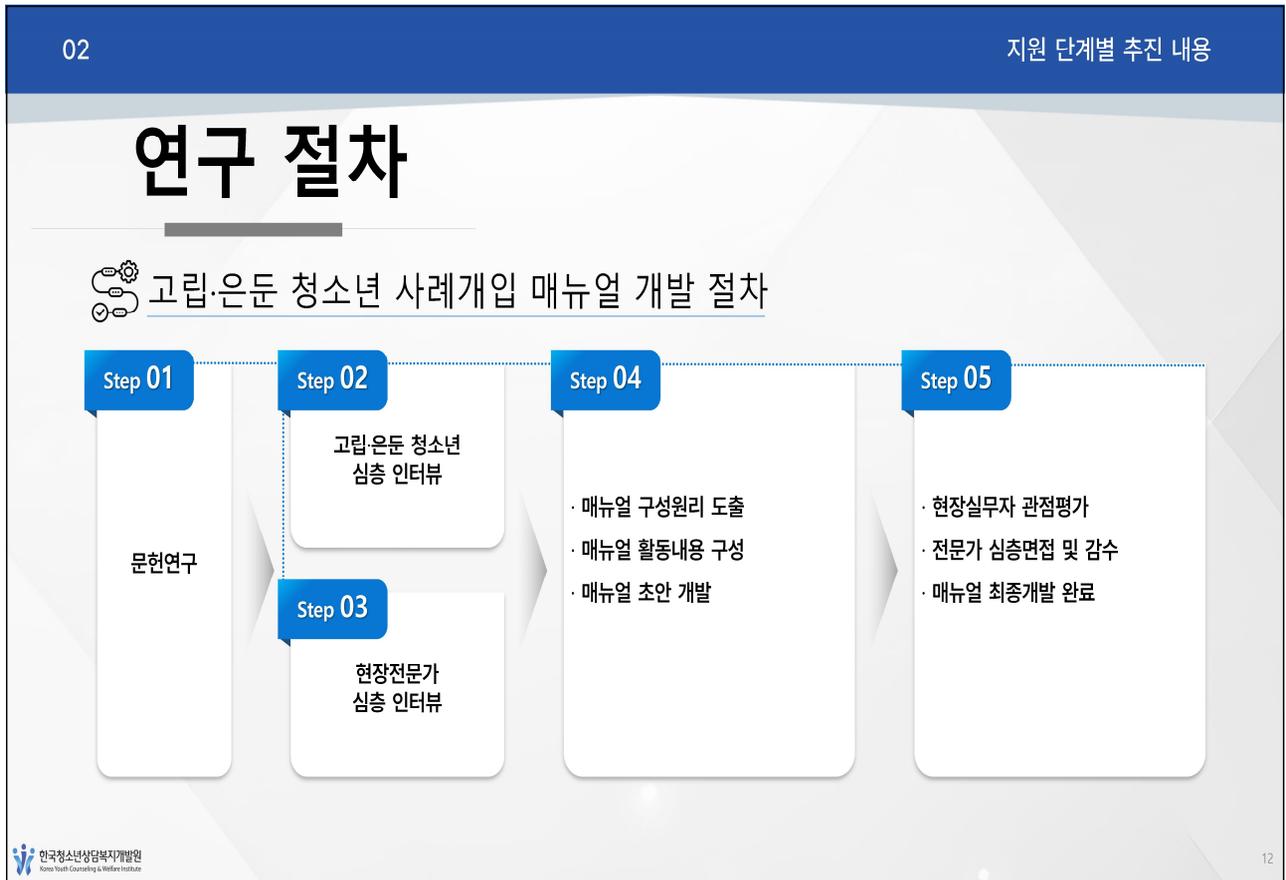
- 사업수행기관 운영 지원
- 사업 운영 매뉴얼, 지원 모형 연구개발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성과 및 통계 관리 등

사업수행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 상담·활동·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및 연계
-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h2>고립·은둔 청소년 발굴</h2>		
발굴방안		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경찰서 등 정보 연계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미연결 사례' 대상 우선 발굴 · (대상) 3개월 이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미연결된 사례(청소년) 전체
지역사회 협력망	공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음버스),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쉼터, 지자체(주민센터 등)를 통해 발굴 및 사례 연계
	민간	· 편의점, 민간상담센터, 병원, 이웃 주민 등 신청·추천 시 발굴·개입
온라인 아웃리치		· 온라인 모임(자조모임 카페, 밴드 등), 메타버스, 청소년1388 포털, 게임사이트 및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아웃리치 실시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참여인원



구분	사례	연령	고립·은둔 기간
1	청소년 A	17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	청소년 B	18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	청소년 C	19	1년 이상
4	청소년 D	18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	청소년 E	21	1년 이상
6	청소년 F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	청소년 G	19	1년 이상
8	청소년 H	22	1년 이상
9	청소년 I	23	1년 이상
10	청소년 J	21	1년 이상
11	청소년 K	19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2	청소년 L	25	1년 이상
13	청소년 M	21	1년 이상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 질문 내용

- ▶ 고립·은둔으로 인한 삶의 변화
 - 기간, 하루일과(바깥 출입 등), 대인관계(가족, 또래 등)
 - 학습(성취도, 진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정도
 - 건강상태(정신건강 포함)
- ▶ 고립·은둔 당시 주로 경험하였던 감정
- ▶ 고립·은둔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
- ▶ 고립·은둔 생활의 긍정적인 부분
- ▶ 고립·은둔 극복 계기
- ▶ 고립·은둔 극복 이후 삶의 변화
 - 정서, 관계, 일상생활
- ▶ 고립·은둔 당시 도움 받은 내용
 - 상담 등 공적 지원, 주변 사람들의 지원
- ▶ 고립·은둔을 극복하고 나서 얻은 점
- ▶ 재고립·재은둔 경험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계기	고립·은둔 위험요인	자퇴 등 학교생활 부적응	전형적(8)
		우울증과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	변동적(4)
		심리적 소진(방전)	드문(2)
		가족과의 갈등	드문(2)
		타인과의 갈등	드문(1)
		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무등교	드문(2)
		고립된 환경	드문(1)
	고립·은둔 촉발요인	의미 있는 타인과의 이별 경험	드문(2)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	변동적(4)
		스트레스 사건 경험(위기 경험)	변동적(5)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상태 (삶의 변화)	기간	1년 미만	변동적(3)
		1년 이상 ~ 2년 미만	드문(2)
		2년 ~ 3년 정도	변동적(4)
		3년 이상 고립·은둔 장기화	드문(2)
	생활패턴	최소한의 일상생활 패턴 유지	변동적(4)
		급격히 무너진 생활패턴(루틴없는 생활)	변동적(6)
		밤늦게 자고, 낮에 일어나는 수면패턴	변동적(4)
		혼자 먹는 불규칙한 식사	변동적(4)
		집이나 방에 틀어박힘	변동적(6)
		가족과 동거	드문(1)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상태 (삶의 변화)	외부 활동	혼자 짝은 산책	변동적(4)
		간헐적 등교	드문(1)
		시설 및 기관 이용	변동적(3)
		취미를 위한 외부활동 시도	드문(1)
		알바 시도	드문(1)
		신검 등 필수 활동	드문(1)
	온라인 활동	인터넷 거의하지 않음	드문(1)
		인터넷 과의존(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	변동적(6)
		커뮤니티 활동	드문(1)
	학업	학업을 지속함	변동적(3)
		학업을 놓음	변동적(3)
	건강	우울 및 불면	변동적(4)
		신경정신과 약물 치료	변동적(3)
	신체 건강 악화	변동적(6)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대인관계	가족관계	고립·은둔에 대한 수용적 태도 및 소통 지속	전형적(7)
		무관심 및 대화 단절	변동적(5)
		고립·은둔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갈등	전형적(7)
		가족에 대한 집착	드문(1)
	도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	친구들과 관계단절	전형적(9)
		피상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관계	전형적(9)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도래와 관계유지	드문(1)
		온라인상에서 친구 사귀기	드문(1)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으로 인한 개인 내적 변화	정서변화	단절감 및 외로움	변동적(4)	
		무력감	드문(2)	
		부정적인 감정상태 지속	드문(1)	
		편안함	드문(1)	
		외로움과 편안함의 양가감정	드문(2)	
		부리움	드문(1)	
	인지변화	죄책감 및 혐오감	드문(2)	
		자기 혐오 및 비하	변동적(4)	
	자기 성찰/자아 성장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	드문(1)	
		자기 이해	변동적(3)	
		자기 수용	변동적(3)	
		자해행동 감소	드문(1)	
			자유로운 시간 속의 긍정적인 기분	드문(1)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극복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극복 계기	개인 내적 동기	삶의 의미 재구성 및 태도 변화	변동적(5)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한 노력 시도	변동적(5)
	지지자원	부모 등 주변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변동적(6)
		기관 및 시설의 지원	변동적(3)
		애완동물과의 교류	드문(1)
	다양한 활동 시도	경제활동	드문(1)
		기관 방문 및 프로그램 활동	변동적(6)
		옥외에서 혼자 하는 활동 시도	드문(2)
		취미활동 시도	드문(2)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극복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극복 이후 변화한 모습	행동의 변화 (생활패턴)	규칙적인 생활패턴	드문(2)
		외부활동 반경 확대	드문(2)
		진로 및 취업 활동	변동적(3)
	대인관계	새로운 관계 형성	변동적(3)
		회피 경향 감소	드문(1)
		가족과 관계 회복	드문(1)
		최소한의 관계 유지	드문(2)
		대인관계 불안의 반복 및 지속	드문(2)
	건강상태	정신 건강 회복	변동적(3)
		신체 건강 회복	드문(2)
		고립·은둔 극복 후 불안 증상 재발	드문(1)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인지변화)	주체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	전형적(5)
		미래를 위한 준비	드문(2)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극복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극복에 효과적인 도움	심리지원	심리상담 및 자유 프로그램	전형적(7)
		자조모임	드문(2)
	활동지원	육구 맞춤형 체험 활동	변동적(5)
		지립 역량 지원	드문(1)
		학업 지원	드문(2)
		정기적인 출석을 할 수 있는 활동	드문(1)
	생활지원	경제적 지원	변동적(4)
		자립 활동 기회 지원	변동적(3)
	지지체계	주변사람 및 친구	변동적(4)
		가족	드문(1)
		은둔 외몰이 경험 친구의 지지	드문(1)
	지원 시 유의사항	개별성과 자율성 존중	변동적(5)
		부정적인 상담경험	변동적(3)
		공감적 태도	드문(1)
		체계적인 지원체계	변동적(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극복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고립·은둔 극복 실패요인	타인과 신뢰감 형성 어려움	상담자와 라포형성이 안됨	드문(1)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움	드문(1)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임	드문(1)
	하고 싶은 활동시도의 한계	하고 싶은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듦	드문(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주요 연구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고립·은둔 극복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도(N=13)
재고립·재은둔 재발 경험	원인	고립·은둔 하게 되었던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	드문(2)
		탈은둔 이후 심리적 재소진	드문(1)
		대인관계 어려움 발생	드문(2)
		지지체계의 상실	드문(1)
	극복 요인	돌봐야 하는 가족 등 삶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	드문(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4

주요 연구 내용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소속



민간 : 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7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5개

참여인원



남 : 8명



여 : 7명

구분	사례	직책	고립·은둔 상담사례	상담경력
1	현장 전문가 A	팀장	3사례 이상	5년 이상
2	현장 전문가 B	팀원	3사례 이상	2년 이상
3	현장 전문가 C	팀원	3사례 이상	5년 이상
4	현장 전문가 D	팀원	3사례 이상	5년 이상
5	현장 전문가 E	센터장	3사례 이상	5년 이상
6	현장 전문가 F	팀장	3사례 이상	5년 이상
7	현장 전문가 G	팀장	3사례 이상	5년 이상
8	현장 전문가 H	동반자	3사례 이상	5년 이상
9	현장 전문가 I	동반자	3사례 이상	5년 이상
10	현장 전문가 J	동반자	3사례 이상	5년 이상
11	현장 전문가 K	팀장	3사례 이상	5년 이상
12	현장 전문가 L	팀원	3사례 이상	5년 이상
13	현장 전문가 M	팀원	3사례 이상	5년 이상
14	현장 전문가 N	팀원	3사례 이상	5년 이상
15	현장 전문가 O	팀원	2사례 이상	5년 이상

주요 연구 내용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 질문 내용

-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관련 경험
- ▶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
 -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 및 계기
 - 고립·은둔 상태
 - * 기간, 하루일과(바깥 출입 등), 대인관계(가족, 또래 등), 학업(성취도, 진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정도, 건강상태(정신건강 포함)
 - 고립·은둔 청소년 부모의 특성
- ▶ 고립·은둔 청소년 개입방법
 - 발굴, 평가(진단)방법, 청소년 및 부모 개입방법
- ▶ 고립·은둔 청소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
- ▶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개입 매뉴얼에 필요한 내용
- ▶ 고립·은둔 청소년 사례관리자로서 힘든 점
- ▶ 고립·은둔 청소년 개입 시 소진 예방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사례개입 매뉴얼 구성 원리

01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필요

- ▶ 고립·은둔 청소년마다 고립·은둔 기간, 관계양상, 생활습관 등 특성이 다름
- ▶ 고립·은둔 청소년의 세부 특성, 고립·은둔의 진행 단계, 청소년의 참여 동기 등 종합적 고려 필요

02

학습 및 활동, 상담관계 형성 내용 제시

- ▶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학습 지원(검정고시, 수능 등), 학령기에 필요한 기초학습 등 지원 필요
- ▶ 심리상담 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제시 필요
- ▶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라포형성이 중요한만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라포형성 방법을 조사·정리하여 제시 필요

주요 연구 내용

사례개입 매뉴얼 구성 원리

03

사례개입 단계별로 매뉴얼 구성

- ▶ 사례개입 단계를 접수 및 평가, 상담관계 형성, 초기, 중기, 후기, 사후관리로 나누어 제시
- ▶ 초기·중기·후기 단계에서는 심리상담과 학습 및 활동을 구분하여 구성

04

부모상담 내용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시

- ▶ 부모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중요한 보호요인이므로, 부모상담 내용은 별도로 제시
- ▶ 고립·은둔 청소년이 개입 거부할 경우 부모상담을 장기 지속 할 수 없어 15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
 -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법 및 감정 코치 등

주요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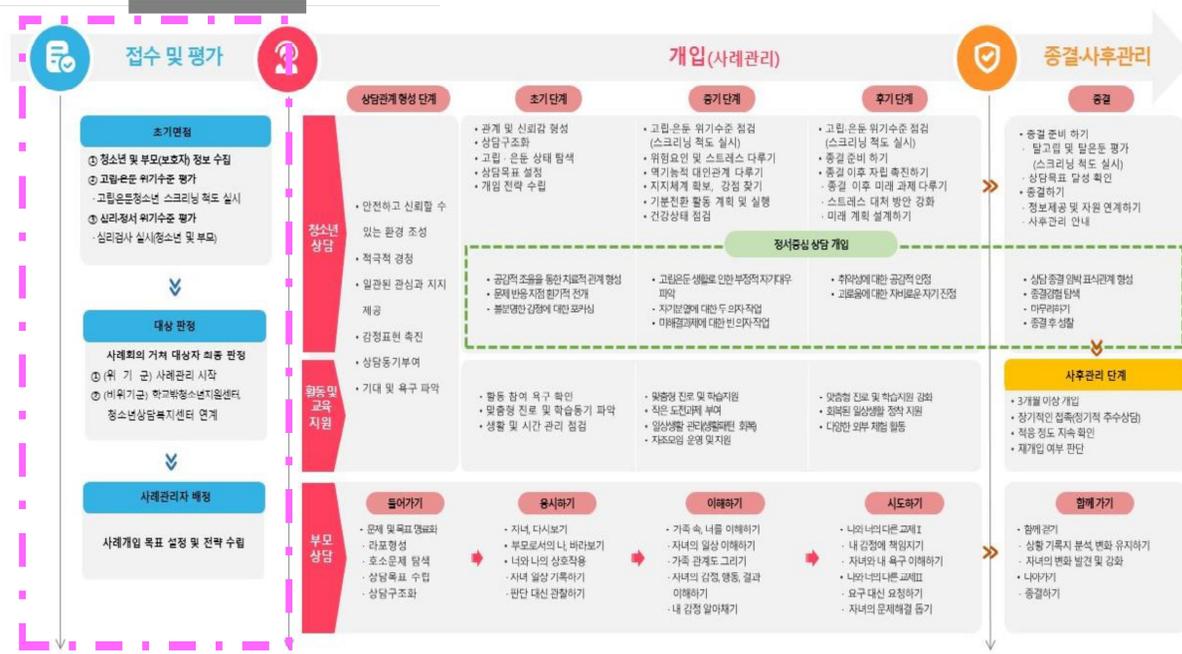
사례개입 매뉴얼 구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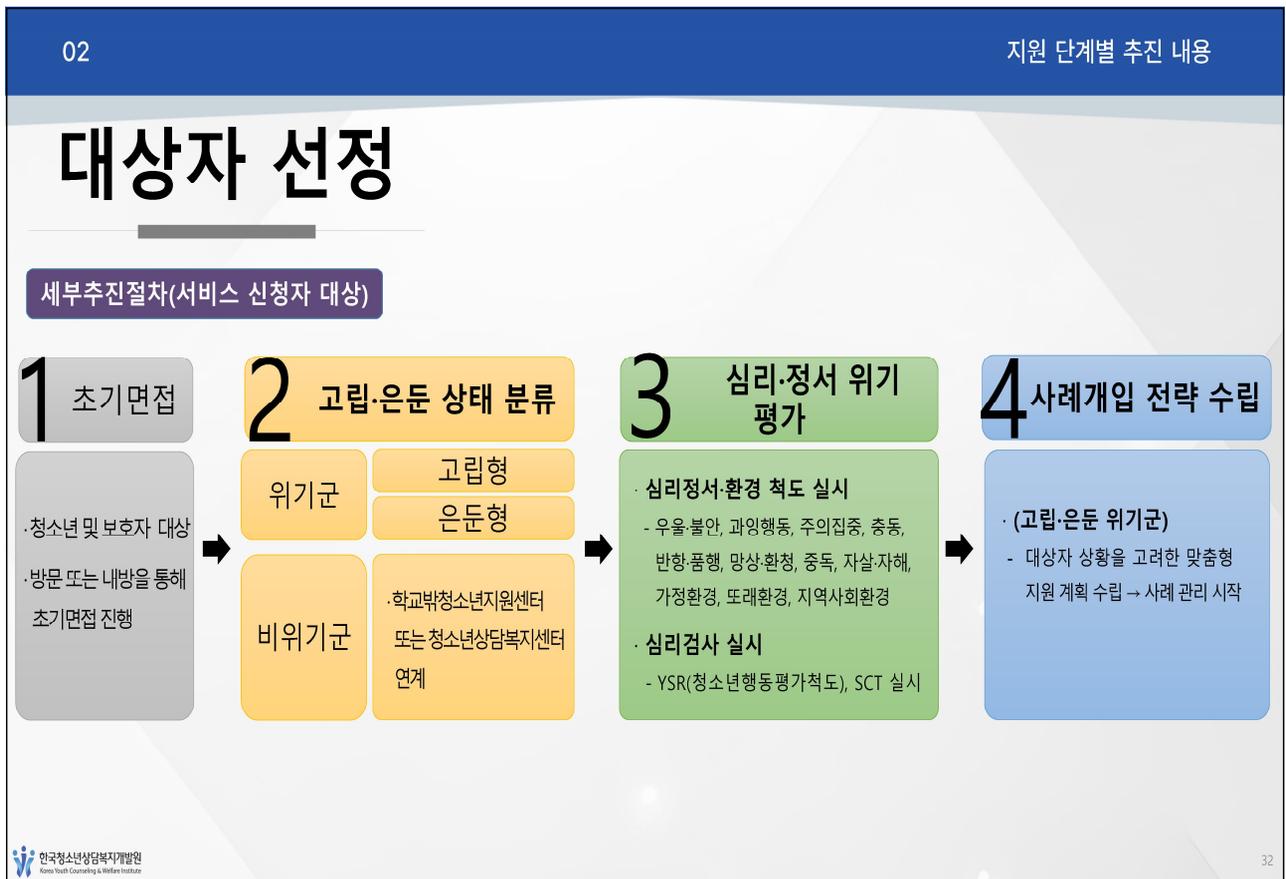
05

효과가 검증된 심리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근거에 기반한 심리상담 개입 방안 제시

- ▶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 시, 외로움과 같은 핵심정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 정서중심치료(Emotion-Focused Therapy: EFT)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응력 있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광범위한 내담자 집단에 효과가 증명됨
- 정서중심치료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매뉴얼 구성

사례개입 단계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대상자 선정

세부추진절차(서비스 미신청자 대상)

1 발굴 시도

서비스 미신청
청소년

→

주기적 연락 및
참여 유도

→

2 대상자 선정 및 개입·연계

<발굴 성공>
 · 사정 및 평가 실시
 · 개입 및 연계 진행

● 지속 발굴 시도 내용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면·비대면 연락 시도
 -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소개 및 이벤트 참여 소식 등 정기적 문자 안내
- 보호자 등 가족 대상 상담 우선 추진
 - * 필요 시, 가족센터 등과 상담연계 가능
- 기타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 제공
 - * 예시: 심리·정서 안정 키트(홍보물) 우편 발송 등

3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사례개입 단계

접수 및 평가

초기면접

대상 판정

사례관리자 배정

개입(사례관리)

상담연계 형성 단계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및 신뢰감 형성 상담구조화 고립·은둔 상태 탐색 상담목표 설정 개입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위기수준 점검 (스크리닝 척도 실시) 위험요인 및 스트레스 다루기 역기능적 대인관계 다루기 지지체계 확보, 감성 찾기 기분전환 활동 계획 및 실행 건강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위기수준 점검 (스크리닝 척도 실시) 종결준비 하기 종결 이후 자립 촉진하기 종결 이후 미래 과제 다루기 스트레스 대처 방안 강화 미래 계획 설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 준비 하기 발굴 및 탈은둔 평가 (스크리닝 척도 실시) 상담목표 달성 확인 종결하기 정보제공 및 지원 연계하기 사후관리 안내
정서중심 상담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적 조율을 통한 치료적 관계 형성 문제반응 지점 평가의 전개 부모양육 강령에 대한 포커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생활로 인한 부정적 자기대우 파악 자기발달에 대한 두 가지 작업 마태복음에 대한 인코딩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성에 대한 공감적 인정 고독함에 대한 자비로운 자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종결 양차 표식관계 형성 종결감당 탐색 마무리하기 종결 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적극적 경청 일관된 관심과 지지 제공 감정표현 촉진 상담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참여 욕구 확인 맞춤형 진로 및 학습동기 파악 생활 및 시간 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진로 및 학습지원 착은 도전다짐 부여 일상생활 관리능력(리빙) 회복 자조요청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진로 및 학습지원 강화 회복된 일상생활 정착 지원 대입안 외부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및 목표 명료화 리포트형성 호소문제 탐색 상담목표 수립 상담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다시보기 부모로서의 나 바라보기 자녀의 상호작용 자녀 일상 기록하기 반년 대인 관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속 나를 이해하기 자녀의 일상 이해하기 가족 관계도 그려기 자녀의 감정, 행동, 결과 이해하기 내 감정 알아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나만의 다른 그려기 내 감정에 책임지기 자녀와 내 욕구 이해하기 나와 나만의 코멘트 요구 대상 요청하기 자녀의 문제해결 돕기

종결·사후관리

사후관리 단계

함께 가기

3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p>지원대상</p> <p>고립·은둔 위기군 청소년, 보호자 등 가족</p>	 <p>상담방법</p> <p>대면(가정 방문 또는 내방), 전화, 모바일, 온라인(SNS, 메타버스) 등</p>	 <p>상담내용</p> <p>청소년 심리, 가족 및 친구 관계, 진로 등</p>	 <p>부모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서 회복 및 일상생활 유지, 사회 재적응 및 관계 향상 등 ✓ 부모 등 가족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 보호지지 자원으로로서의 역할 수행, 소진 방지 등 ✓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관계 회복, 가족 응집력 강화 등
---	--	---	---


35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1) 일상생활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법

01

▶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하기**

- ▶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이나 권유를 쏟아내지 않도록 주의
- ▶ 가벼운 주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주제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음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 앞을 지나는데 딸기가 맛있어 보였어요.”


36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1) 일상생활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방법

02 사소한 변화에 관심을 두되 적당한 거리 두기

- ▶ 변화를 알고 있다는 표현은 하되, 과한 격려, 기대, 응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 청소년의 변화나 새로운 시도에 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출처: 원문형 외동이 청소년 부모 개입을 위한 가이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제7장

03 반응이 없더라도 소통을 유지하기

- ▶ 청소년이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메모, 카톡, 문자, 편지 등으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 ▶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상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음

* 출처: 원문형 외동이 청소년 부모 개입을 위한 가이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제9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37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운영 센터 관계형성 방법

노원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웰컴(Welcome) 키트 활용]

아카데미 과학(Academy Plastic Model) 프로그램

스콜라스(Scholas) 만들기 키트

모루인형 만들기 등 키트 제공

제품 구성

만들기
150×210mm / 16장

조립도
16장 (분리 가능)

학습카드 16장
실용 카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38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운영 센터 관계형성 방법



**노원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편지 전달]



잠시 황을 선택한 나에게,
충분히 쉬다가 문을 열고 싶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
대화가 필요할 때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대화를 신청 해!

활동이 궁금하다면?

www.blog.naver.com/howonyouth2024

www.instagram.com/howonyouth202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39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운영 센터 관계형성 방법



**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헬로 키트 제작]





▶ 간식, 입욕제, 칫솔치약세트, 말랑이 손인형, 아로마오일, 긍정스티커, 선물 (배민쿠폰, 카카오톡인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0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상담관계 형성 단계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운영 센터 관계형성 방법



포항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라포형성을 위한 다양한 도구 활용]

▶ 토닥토닥 미니카드, 모루인형 만들기, 베리칭찬 스탬프, 슬라임, 식물재배 키트, 목재입체퍼즐, 액자퍼즐, DIY 키트 등



컵케익 만들기



키링 만들기



베이킹



보석십자수앤디톡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 키트를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하는 무비데이 등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초기 단계

1) 상담 구조화

01

▶ 상담 환경에 대한 구조화

- 내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함

▶ 상담관계 및 역할에 대한 구조화

- 상담관계에서의 내담자의 권리(원할 때 상담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함

▶ 비밀보장에 관한 구조화

- 비밀보호의 중요성, 예외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초기 단계

2) 고립·은둔 상태 탐색

구분	내용
고립·은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고립·은둔 경험 여부 탐색 · 과거 고립·은둔 경험의 계기, 기간, 양상 등 탐색
고립·은둔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립·은둔 상태의 배경 및 계기 탐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초기 단계

2) 고립·은둔 상태 탐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및 기간 탐색
생활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전·후) 일상생활 변화 양상 및 정도 탐색 * 고립·은둔 상태이지만, 자신만의 루틴한 생활패턴 파악 * 수면, 식사패턴 등 파악
외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전·후의 외부활동 유무, 활동반경 등 탐색 * 등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부터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방·거실·현관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파악 필요 *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반경 및 자신만의 활동 기준 탐색 필요
온라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전·후) 온라인에서의 활동 유무, 활동 형태 등 탐색 * 고립·은둔 청소년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인 경우가 많음 *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게임, SNS 등), 활동 시간 파악 * 온라인에서 관계 형성 여부 파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4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초기 단계

2) 고립·은둔 상태 탐색

학업	· (고립·은둔 전·후) 학습 진도, 학습 동기 등 탐색
건강	· (고립·은둔 전·후)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탐색
가족관계	· (고립·은둔 전·후) 대상자가 인식하는 가족 간의 소통방식, 갈등·친밀도 등 탐색
또래 및 사회적 관계	· (고립·은둔 전·후) 또래 및 사회적 관계 유무, 관계 양상 등 탐색
정서변화	· (고립·은둔 전·후) 정서변화, 주로 느껴지는 감정 등 탐색
인지변화	· (고립·은둔 전·후) 인지변화, 자신에 대한 태도 및 핵심 신념 등 탐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5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초기 단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정서중심치료 개입

```

            graph TD
            A[공감적 조율을 통한 치료적 관계 형성] --> B[문제 반응 지점에 대한 환기적 전개]
            B --> C[불분명한 감정에 대한 포커싱]
            C --> D[고립·은둔 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자기대우(갈등 분열) 파악]
            D --> E[자기분열에 대한 두 의자 작업 시행]
            E --> F[미해결과재에 대한 빈 이자 작업 시행]
            F --> G[취약성에 대한 공감적 인정]
            F --> H[괴로움에 대한 자비로운 자기진정]
            G --> I[효과적인 종결 작업]
            H --> I
            
```

} 초기단계
↓

} 중기단계
↓

} 후기단계
↓

} 종결단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6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중기 단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 방법

- ▶ 위험요인 및 스트레스 다루기
 - 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적 위험요인과 스트레스 수준 파악하기
 - 위험요인 및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고립·은둔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 지지체계 확보
 - ▶ 기분전환활동 계획 및 실행
- ▶ 역기능적 대인관계 및 대인기피 패턴 다루기
 - ▶ 강점찾기
 - ▶ 건강상태 점검
 - 대인관계에서의 인지적 왜곡 유형 알아보기
 -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요인 알아보기
 - 대인관계 목표달성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연습하기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후기 단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 방법

- ▶ 종결 준비하기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탈고립·탈은둔 정도 평가
 - 상담목표 달성 확인하기
 - 사례개입 지속 또는 종결 여부 결정하기
 - 종결 시점 정하기
- ▶ 종결 이후 자립 촉진하기
 - 종결 이후 미래 과제 다루기
 - 스트레스 대처 방안 강화
 - 미래 계획 설계하기
- ▶ 종결하기
 - 정보제공 및 자원 연계하기
 - 사후관리 안내하기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사후 관리 단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 방법

- ▶사후관리 기간
 - 내담자의 적응 상태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지원 방법
 - 장기적인 접촉
 - 사회적 안전망 활용
 - 미래 계획 설계하기

- ▶재개입 여부 판단
 - 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담자에 대한 사정 및 평가를 다시 진행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49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 ▶구조화
- ▶15회기
- ▶응시하기, 이해하기, 시도하기
- ▶대화기법 : 비폭력 대화
- ▶작은 과제/작은 목표

구분	제목	회기
들어가기	문제 및 목표 명료화	1~2회기
응시하기	자녀, 다시 보기	3회기
	부모로서의 나, 바라보기	4회기
	너와 나의 상호작용	5~6회기
이해하기	가족 속, 너를 이해하기	7~8회기
시도하기	나와 너의 다른 교제 I	9~10회기
	나와 너의 다른 교제 II	11~12회기
함께 가기	함께 걷기	13~14회기
	나아 가기	15회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50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고립·은둔청소년의 작은 보폭 접근(small-step approach)

[부모 접근]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기
- 자녀의 건강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하기
- 자녀가 즐겁게 하는 어떤 일에 대해 격려하기
-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 자녀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식사초대, 도움 요청 등)
- 자녀에게 다가가 인사하기

[자녀의 행동 변화]

- 미래에 대해 이야기함
- 지지와 자원에 대해 이야기함
-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함
- 즐거움, 일상적인 활동, 성공적인 경험을 함
- 가족과 이야기함
- 가족과 시간을 보냄
- 인사에 반응함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1) 고립·은둔 자녀 심리 이해

- ▶ 자녀의 장점은? 강점은?
- ▶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관심 있어 했던 분야는?)
- ▶ 자녀가 잘하는 것은? (잘했던 것은?)
- ▶ 현재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 ▶ 자녀가 최근 주로 하는 말은?
- ▶ 자녀가 편안해하는(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 ▶ 자녀가 불편해하는(불편했던) 사람은?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1) 고립·은둔 자녀 심리 이해

▶ 정서변화로 단절감과 외로움이 가장 큼



“ 거의 정서적 단절이 좀 더 맞는거 같아요. 신체적,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이미 단절되어버렸다. 그런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네요. “
 예전에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긴 했지만, 고립·은둔 이후에 정서적으로 좀 더 힘들어졌다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냥 안개 속에 홀로 있는 기분, 그거 한 마디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밤하늘이라고 하면은 별빛이라도 이정표가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 솔직히 얘기하자면 은둔한 게 훨씬 더 편했어요. 안 나가도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나는데 강박증이 있었다면 그것도 아예 없어지고,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밖에 안 나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근육통도 없어지고, 마음 편한 상태도 유지되고..


5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1) 고립·은둔 자녀 심리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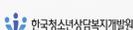
▶ 자기 혐오 및 비하



“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그때는 되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좀 그랬어요. 제가 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거.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랑 자책하고 이런 감정들도 힘들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고 막막한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정말 일단 눈치 보이는 게 제일 컸고요. 아무래도 혼자 있다는 게 괜히 사람들이 '재는 왜 혼자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제 또래들은 저와 다르게 정말 예쁘게 꾸미고 정말 대학생처럼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초췌한 모습이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54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1) 고립·은둔 자녀 심리 이해

▶ 고립·은둔 생활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성장의 기회 마련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됐던 것 같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 ...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

은둔·고립 경험이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는 수용하고... 어쩔 수 있는 거는 내가 바꿔야겠다는 용기를 좀 가져야겠다... 그런 지혜를 저에게 가져다 준 것 같아요.

”



서비스 지원

1. 상담지원

부모상담

1) 고립·은둔 자녀 심리 이해

▶ 탈고립·탈은둔을 고민하고 극복하려는 내적 동기와 현재의 편안함에 대한 양가감정



‘이제 외부로 나가자’ 이런 결심을 한 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람으로서 1인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죽고 싶은 건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좋은 거는 그냥 죽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기 위해 노력하기는 귀찮고... 근데 또 노력하기 귀찮으면 어차피 살아야 하니깐... 살려면 1인분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구체화되면서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혼자 집에만 있다는 게 남들이랑은 많이 다른 삶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었거든요.

”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2. 활동지원

 지원대상	 상담방법	 상담내용	 부모상담
고립·은둔 위기군 청소년, 보호자 등 가족	사례관리자와 초기 상담 을 통해 청소년 및 가족과 신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 개인상담 외에 여러 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일상생활 등 회복 촉진 필요시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체험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인력,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연계, 외부 강사 등 활용 ✓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온·오프라인)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가 대상자와 1:1 또는 1:N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등 상황에 맞게 운영


57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2. 활동지원

회복·치유 집단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내용

유형	내용
일상생활 습관관리	· 기상취침, 세안, 청소 등 관리 * 고립형, 은둔형 유형인 경우 필수 ·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전과제 부여(방구석 챌린지) 등
정서회복·치유	· 자기이해, 자존감 향상, 회복탄력성 향상 · 트라우마 극복, 우울 불안 다루기 등
관계향상	· 배려·공감 연습, 의사소통 향상, 사회성 증진 등
취미활동	· (취미) 요리, 독서, 공방, 공연·전시 관람, 식물 기르기 등 · (예술) 음악, 미술 등 · (체육) 산책, 요가, 축구·농구 등
자조모임	· 고립·은둔 청소년 또래 모임, 부모 등 가족 모임
멘토링	· 대학생 등 활용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자체 서포터즈 구성, 활용 가능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꿈드림 멘토단 활용 가능


58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2. 활동지원

회복·치유 집단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내용

유형	내용
문화예술	· 회화, 디자인, 공예, 서예, 악기·보컬교육, 연극·영화관람, 사진, 영상편집, 푸드아트, 뷰티, 글쓰기, 역사탐방, 마술 등
체육활동	· 수영,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봉사활동	· 일손돕기, 위문활동, 재능기부,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 등
과학정보	· 컴퓨터, IT, 모형, 로봇, 과학탐구, 창업, 발명 등
환경보존	· 환경체험, 생태·환경 탐사, 환경·시설보존 등
언어	· 회화, 언어능력시험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Health Learning & Welfare Institute
59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3. 학습(교육)지원

지원대상

.....

고립·은둔
위기군 청소년

상담방법

.....

사례관리자와의
초기 상담 이후,
변화에 대한 동기·의욕이
향상되었을 때 지원 필요

상담내용

.....

사례관리자와의
초기 상담 이후,
변화에 대한 동기·의욕이
향상되었을 때 지원 필요

부모상담

.....

- ✓ 학습(교육) 지원은 필수 사항이 아님
- ✓ 학습(교육) 지원의 세부 유형, 내용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대상 청소년과 면밀한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

한국
Korea
60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서비스 지원

3. 학습(교육)지원

방문·온라인
학습 지원 절차

학습역량진단

- 최종 학력 및 성적, 과목별 진도를 통해 학습역량 파악
- 학습역량에 맞춰 수준별 개인 학습 계획 수립 및 청소년과 공유

방문 · 온라인학습지원

- 학습계획에 맞춰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진도상황 모니터링, 문제풀이 등 지원
- 과목별 역량진도 등을 감안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 사회과학 등 선택과목은 별도 강좌 지원 및 진도 모니터링 등 지원

심화지원

- 분기별 모의고사, 검정고시 응시 등 학습 상황에 따라 필요사항 지원
- 분기별 자체 학습역량 재진단 실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61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개요

- 1

탈고립 또는 탈은둔인 경우 종결
발굴 후, 2년 이내 탈고립·탈은둔을 목표로 사례관리 지원단, 1년마다 센터장 주재 사례관리 위원회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2년을 초과하여 사례관리 할 수 있음)
- 2

적정 시기별(최소 반기)로 사후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추가 심리검사(필요시)를 실시하고, **대상자와 협의하여 종결 결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62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종결 및 사후관리



**서비스 종결 후
사업성과평가 실시**

- ✓ 사후 「고립·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실시
 - 사례관리 전후 청소년의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

탈고립 기준	· 사전 대비, 2개 요인 중 1개 요인이라도 절단점 미만이 된 경우
탈은둔 기준	· 사전 대비, 3개 요인 중 1개 요인이라도 절단점 미만이 된 경우

- ✓ 사후 심리정서·환경 척도(사후) 실시
 - 사례관리 전후 심리정서 회복 정도 평가(우울·불안 및 과잉행동·주의집중·충동 등 세부영역의 점수 변화도 확인 필요)
-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 받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63

02
지원 단계별 추진 내용

종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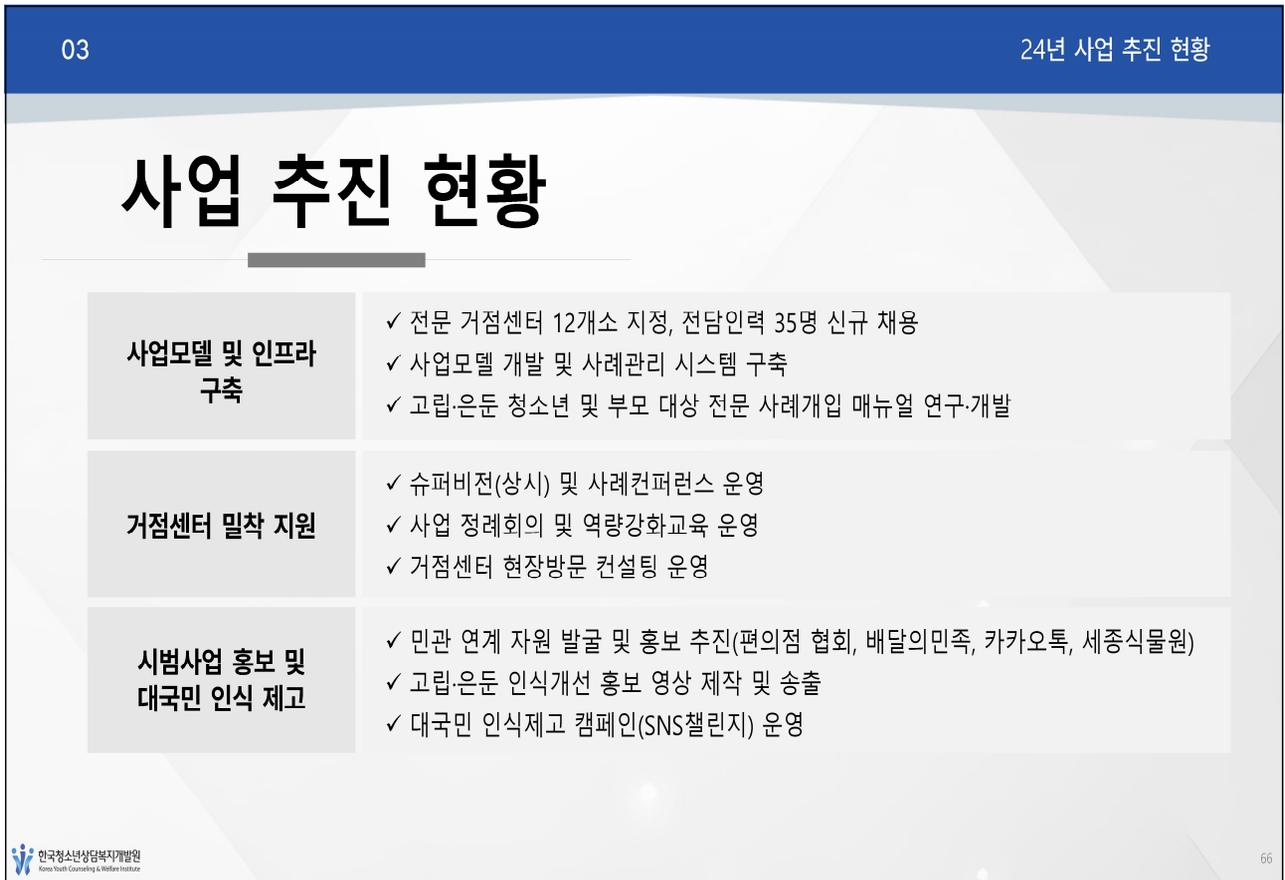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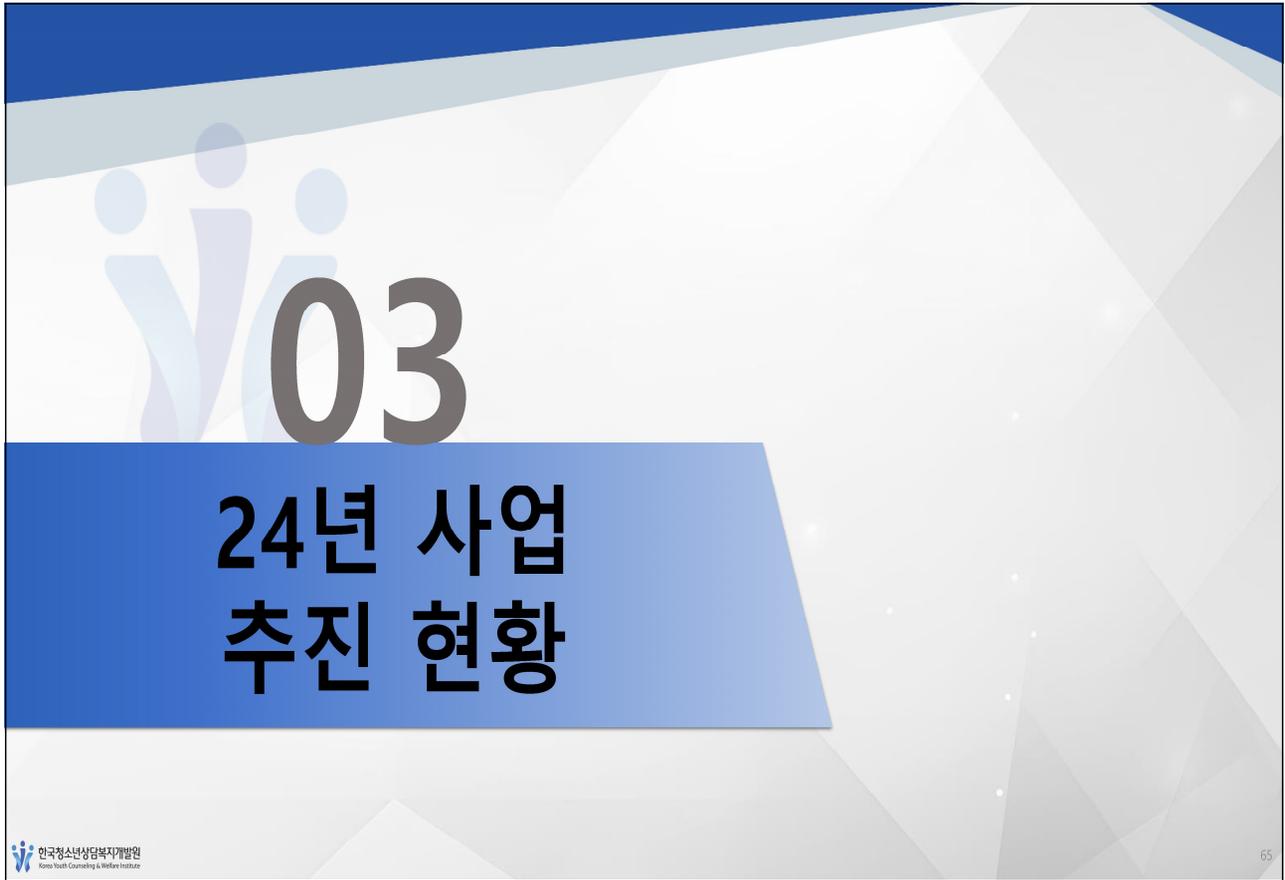
- 1

고립·은둔 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해 사후 관리 추진
- 2

방법 및 내용
정기적인 추후 상담을 통해 재고립·재은둔 징후 지속 모니터링, 생활 모니터링, 자원 연계, 정보제공 등 대상·사안별 맞춤형 지원
- 3

사후관리 기간
대상자의 적응상태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대상·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64



03
24년 사업 추진 현황

개입 사례1

은둔 청소년에 대한 개입

탈은둔 및 지속적인 사회 적응 중

 청소년 특성 및 문제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첫 외출	 탈은둔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15세 ✓ 집단 따돌림으로 중학교 자퇴 ✓ 자퇴 후 은둔 생활 시작 ✓ 1년동안 은둔(불면증, 바뀐 낮과 밤, 대인기피) ✓ 학교폭력 트라우마, 부모이혼, 느린 학습 ✓ 모가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 서비스(20회기, 6개월) - 라포형성 : 춘식이 캐릭터 활용 - 심리지원: 명상, 드라마세러피 등 - 생활습관 매니저: 오전중 일어나기, 스트레칭하기, 규칙식사 등 - 활동 : 내방하여 공예활동,영화,스포츠 - 가족(부모)상담 ✓ 첫외출 : 배달의 민족 후원 푸드 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래 모임 참여 시작 ✓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검정고시), 자기 개발 프로그램(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개입 6개월 만에 탈은둔으로 사례 종결 ✓ 사회 적응을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 지속 지원 중


67

03
24년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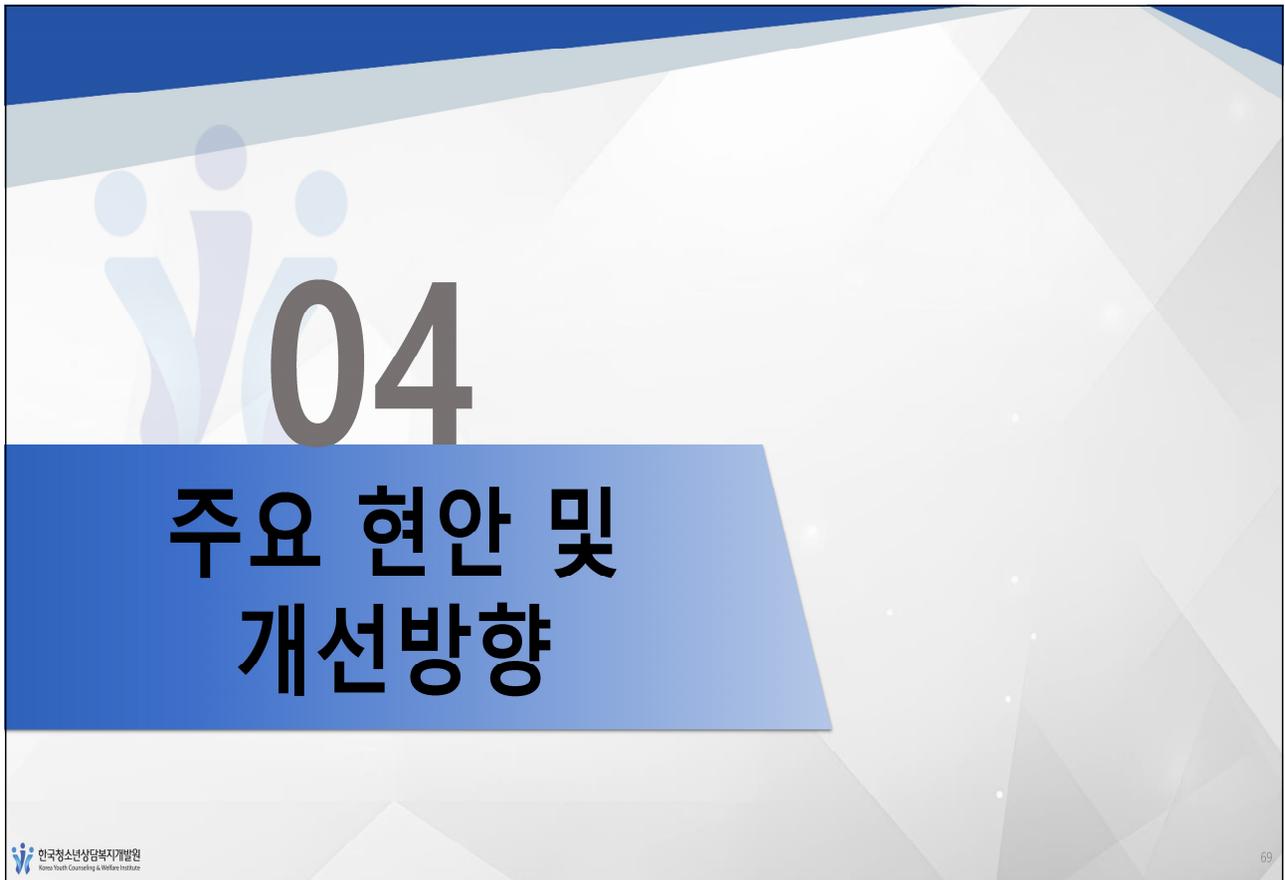
개입 사례2

은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개입

청소년 사회 복귀 중

 청소년 특성 및 문제	 상담 거부 및 모 상담 개입	 변화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청소년 ✓ 어린 시절 부의 언어적·신체적 학대-> 쉼터 거주(1년 8개월) ✓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 경험 ✓ 아끼던 애완동물이 죽은 후 외로움을 느끼고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은둔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 ✓ 청소년의 상담을 거부하고 반항적인 태도 ✓ 모 상담 우선 제공 ✓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청소년의 욕구 파악-> 영어교육 ✓ 모의 변화된 모습과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학습지원과 상담지원 병행 ✓ 센터 테니스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점차 사회로 복귀 중


68



04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현안 및 개선방향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개입 및 관리 필요	(기준) `24년 기준 탈고립·탈은둔 인원은 25명으로 고립·은둔 기간이 1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성과임 (문제점) 사례관리자들이 청소년의 모든 심리정서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례개입 기간이 장기화되고, 지원 청소년도 한정됨 (개선방향) 본 사업의 사례관리 목표를 탈고립·탈은둔으로 명확히 하고, 종결 이후 미해결 과제는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 필요
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개입 및 효과성 강화 필요	(기준) 거점센터별로 각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 슈퍼비전의 방법 및 내용이 상이함 (문제점) 거점센터 및 사례관리자의 특성에 따라 사례개입 내용 및 효과성에 편차 발생 우려 (개선방향) `24년 개별 사례관리자 대상 사례개입 매뉴얼 개발 완료, `25년 거점센터의 사례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70

04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현안 및 개선방향

온라인 콘텐츠
다각화 필요

(기존) 고립·은둔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오프라인 위주의 상담·활동 등 개입이 이루어짐
(문제점) 온라인 콘텐츠(프로그램, 활동 플랫폼 등)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개선방향) `25년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온라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예정

전문인력 확보 필요

(기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슈퍼비전 등 밀착 지원 중
(문제점) 임시직의 한계로 지속적인 해당 업무 종사 비율이 낮고('24년 인력 43% 퇴사),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도 어려움
(개선방향)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상 라포형성이 어렵고, 사례개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확보 필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71

04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25년 사업 추진 방안

01

대상자 선정, 종결 등에 대한
사례관리 세부지침 제시

0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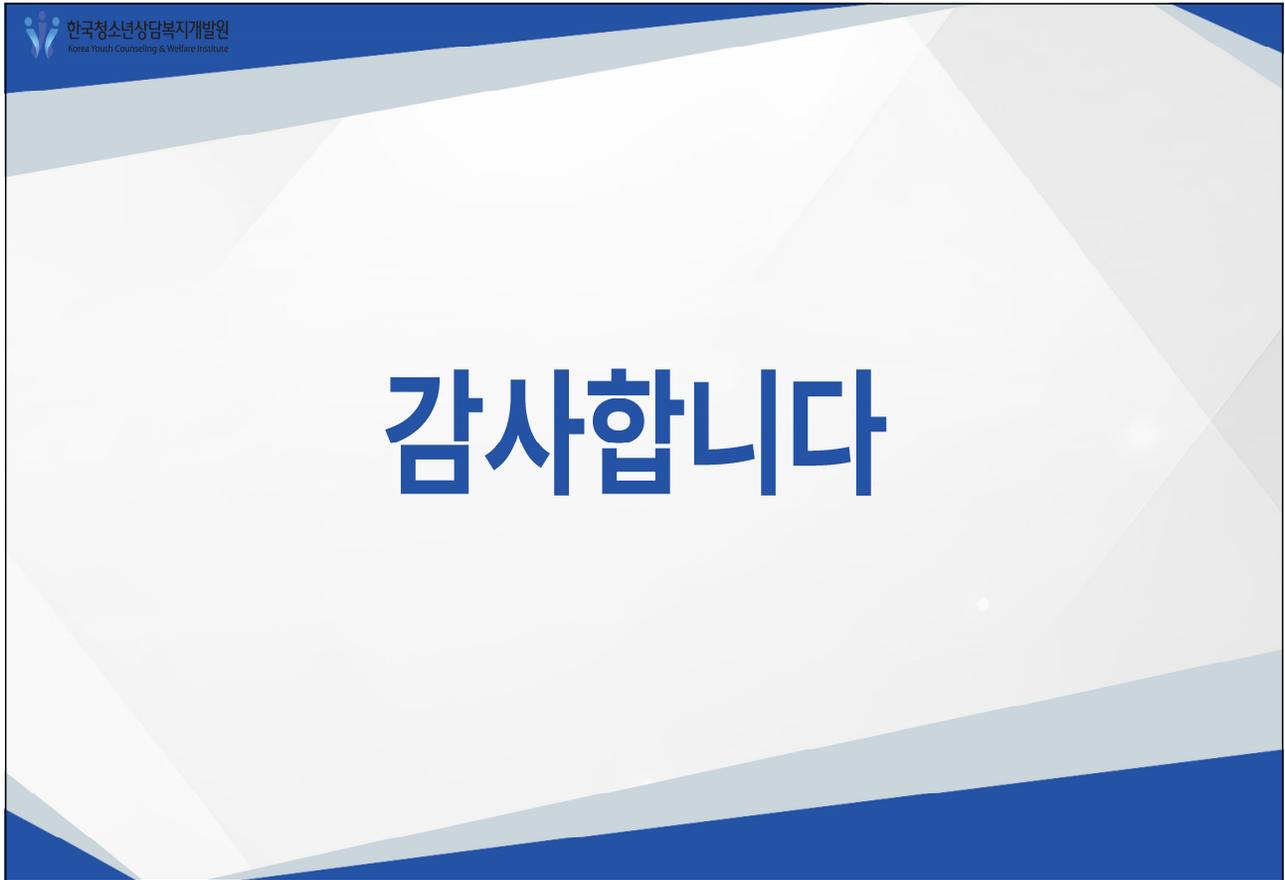
03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04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72



종합토론

-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 김혜은 (대구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청소년 고립·은둔 현상’에 대한 우리의 과거-현재-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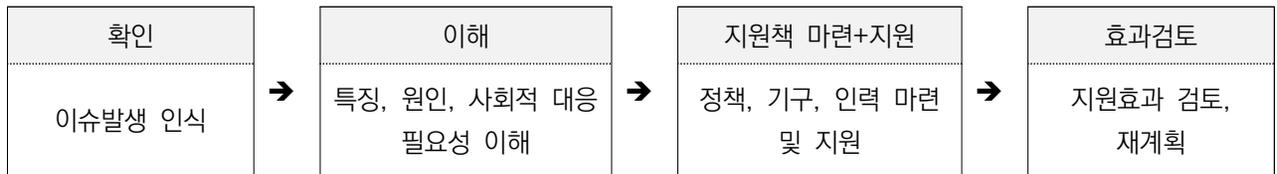
•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토론 1 **'청소년 고립·은둔 현상'에 대한 우리의 과거-현재-미래**

•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1. 과거: 놀람과 빠른 대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고립·은둔 주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불거졌다. 'N포 세대', '이생망' 등으로 묘사된 우리 사회 청년들 삶의 고단함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기존 취업지원에만 편중해 온 청년정책의 다양성과 효과성 부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의 시작점이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립·은둔'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사회적 대응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청소년 고립·은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이 과정들 중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2. 현재: 긍정적 효과와 아쉬움 공존

이번 발표자료를 통해 2024년 청소년 고립·은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실행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대상자 확인 및 이해와 사회적 대응 필요성 인식: 고립·은둔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정하게 되었다(원인, 영향, 대응방법 모두에서). 둘째, 그렇게 대상자에게 시선을 뚫으로써 그들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이지만 시범사업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대응이 최근 2~3년 사이(본격적으로는 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놀랍고 고무적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는 청소년 고립·은둔 현상에 대해 위 과정을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밟으며 성숙해가고 있다기보다는, 각 영역 접근을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쉬움과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3. 미래: 향후 과제들

이제는 각 과정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

첫째, 중장기적 계획과 선택 필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귀한 경험치를 토대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필요한 대응책 중 우선순위와 초점화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는,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이제까지처럼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보건복지부와 협력했던 것을 유지·확대함과 동시에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조사결과 60% 정도 재학생. 학교 내 초기 스크리닝, 학교-가정 협력 등 필요).

둘째, 담당자 역할과 역량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책 마련 필요(24년 12개소, 35명 채용): 이 부분은 과거-현재를 돌아보며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다. 사업의 기획, 전달, 담당 차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었다. 이는 채용된 인력의 개인적 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명료하지 않았고, 구체적 지침과 도움을 주지 못했다(매뉴얼 제작·전달, 간헐적 교육의 한계. 2024년 담당자 채용의 어려움 및 43%라는 높은 퇴사율 주목 필요). 다른 많은 사회현상도 그렇지만, 고립·은둔의 문제는 특히 인간 대 인간의 '전문적이고 신뢰로운 관계'가 지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것이 확보되지 못할 때, 간신히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이나 가족들은 다시 숨어들 수밖에 없다. 마음이 급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 차분히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총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효과적인 세부사업 수행 필요: 이 점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지원'이다(청년층의 취업연계와 같은 맥락). '마음이 무너진', '삶의 활력을 잃은', '관계자본이 끊어진' 청소년들에게는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성취, 수행, 가시적 결과를 목표로 두거나,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방향적으로 가르치거나 전달하려 한다면(예: 좋은 생활습관, 학업복귀, 대인관계 기술습득, 사회성 향상 등) 이들은 기존에 느꼈던 사회적 압력을 재경험할 수밖에 없다(자퇴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등록 현상 주목). 이는 마치 라포형성 후 '본론'을 제시한다고 느끼게 만들기 쉽다. 또한 가족(부모)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당사자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청년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아직 부모개입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당사자를 매일 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발표자료 '보호자 개입' 부분 참조).

넷째, 민과 관의 효율적 연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 분배 필요: 청년과 달리 청소년의 고립·

은둔 현상 대응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 청년집단에 대해서는 고립·은둔의 지원을 담보할 법적 근거, 정부조직, 전달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청소년은 이 일을 담당할(최소한 관련 업무를 해온) 기존 공적 기구들을 통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청소년 관련 법들, 여성가족부라는 총괄 기구, 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등).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고립·은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해온 민간기관의 경험을 적극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청년 정책의 예시).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합함과 동시에 고유의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 시범사업을 수행한 12개(확대 예정) 기관들은 '광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이 기관들은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족지원에 대한 직접서비스가 아니라 그 지역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정부와의 연계 꼭지점 역할, 지역 내 욕구확인, 세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민·관 기관 연계, 인력지원 및 양성, 효과검증, 수행기관 모니터링,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이렇게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를 활용하여(모세혈관을 돌게하는 중추 역할 수행), 지역 내 이 현상이 개선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는 지난 10년동안 '청소년·청년의 고립·은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외치고 다녔고, 작은 기관을 운영하여 미약하지만 열심히 움직였다. 마치 '불이 났다'고 외치고 다녔던 것 같다. 이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불이 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시범적 노력은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러한 노력은 '시범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시행착오와 성숙의 시간 필요).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발표 때는 함께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했음을 나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 토론문

- 김혜은 (대구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토론 2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 토론문

• 김혜은 (대구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직후 한 기자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더 테레사 수녀는 “당신의 집으로 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아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부터 조건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자신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 고립·은둔으로 불행을 호소하는 청소년

청소년통계(2024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9~24세)는 총 인구의 15.1%로 계속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한 명이 소중함에도 1년 내 중등학생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고의적 자해(자살)가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합니다.

2023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의 청소년은 고민이 있으며, 청소년의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88.2%)이고, 그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63.1%)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는 미래의 나를 위해(79.7%), 못하면 부끄러워서(32.5%),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14.4%), 재미있어서(19.0%)입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보다 6단계 떨어진 58위를 했습니다. 1인당 GDP(경제적인 풍요로움)와 건강기대수명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적 지원(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선택의 자유(개인이 삶을 결정할 자유를 느끼는 정도)에서의 낮은 점수가 하락의 주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적인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홀로 식사하는 사람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 유대의 상징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족,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며 이타적인 활동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주된 요인을 볼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이 증가하는 현실과 실태조사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2. 대구동구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동행

대구동구는 2024년 부터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 인력 2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인원 4명을 포함한 전체 인원은 19명입니다. 연령별로 19~24세 9명, 13~18세 10명이고, 성별로는 남 13명 · 여 6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은 13명, 재학생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사례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 A 사례

초·중·고를 다니지 않고 혼자서는 대문 밖으로 나온 경험이 없는 A는 담당자와 매주 외출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현재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등 검정고시 합격을 하였고, 중등 검정고시 응시를 통해 고등학교 진학을 고려 중입니다.

청소년 B 사례

1년 가까이 은둔하고 있는 B는 좋아하는 활동 탐색과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재 매주 정기적으로 스스로 집 밖을 나가 '기타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툴지만 기타 연주를 들려 주는 등, 표정까지 밝아졌고 거의 탈 은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C 사례

부모와 단절하고 2년 가까이 방에서만 지내고 있는 C는 4개월 가까이 정기적인 방문을 하였지만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 상담 및 코칭을 하였고, 현재 어머니의 문자에 답하는

정도로 소통을 시작하였고, 방 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문 앞에 내어 놓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D 사례

은둔 시작 후 혼자서 집 밖을 나온 적이 없는 청소년 D는 담당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센터 방문을 시도하고 있고, 스스로 센터 내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3. 고립·은둔 청소년의 '행복하기' 선택을 위한 제언

은둔 청년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들은 아동·청소년기 성장환경, 부모,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 등, 높은 수준의 부정적 경험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고립·은둔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William Glasser는 “행복 혹은 정신적 건강이란 당신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잘지내면서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선택한 삶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립·은둔 청소년이 case by case 상황임에도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안전한 관계 맺기를 위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선택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기관 및 전담인력의 세계관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개입의 다양화 및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Needs, Real Want 탐색 하고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활동을 통해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외부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운영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안정적인 관계 향상 및 지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첫 대면에서부터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탈 은둔이 되면서 고

립에서 벗어나기 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담인력의 소진예방, 전문적 관계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소견을 첨언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입시중심 교육, 경쟁·성공·경제 중심 사회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없는 학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위기 상황일 때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법정 휴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가족, 친구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들이 줄어들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세계 행복 보고서에 한국의 행복 지수가 여러 단계 올라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자료]

- 노혜진(2024)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23년「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활용한 질적 분석.
- 불행한 10대를 도우려면, William Glasser, 박광석 옮김, 한국심리상담연구소(2013).
- 여성가족부(2023, 2024년). 청소년통계,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원빈·문의정(2024). 청년의 물리적 은둔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소통단절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권 413-414.
- 호수지, 배정희(2024).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은둔 청년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 인터넷 자료.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현황 및 개선 방향

-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토론 3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현황 및 개선 방향

• 권혁도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립·은둔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과 필요성

고립·은둔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전에 이러한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 이유로 65.5%가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39.7%가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은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 생활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현황

가. 그간 추진 상황

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로,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9~24세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9명의 전담 인력이 총 82명의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 중 66명을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판정하여 상담, 학습 지원, 외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부모교육과 청소년·부모를 위한 온·오프

프라인 집단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청소년이 8.8점, 보호자가 9.2점으로 나타났으며, 고립·은둔으로 판정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례

버스가 하루에 두 번만 들어오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한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과 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사회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 겪으며 고립·은둔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청소년이 관심을 보였던 요리와 장보기 활동을 통해 자립과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가르쳤으며, 이를 계기로 진학에 대한 동기가 생겨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합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말에는 검정고시 장학재단 추천을 받아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매주 방문해 그림 도구를 두고 가며 청소년을 재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그림 실력이 드러났고, 주먹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등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웹툰 캠퍼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작가 멘토 연결과 지역사회를 통해 새 책상과 침대, 이불과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은둔 생활로 인해 새벽 시간에만 외출하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패턴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새벽 시간에 맞춰 방문 상담과 산책을 함께하며 서서히 외출 시간을 낮으로 옮기는데 성공했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단순한 생활 패턴 변화가 아니라 사회 복귀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 함께 자조모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 간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가 크게 안정되었고, 한 보호자는 “고립·은둔이 우리 가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

2025년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9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을 확대하고 맞춤형 회복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상담, 온라인 프로그램,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내 잠재적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양성된 지역사회 전문인력 기반의 고립·은둔 서포터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라. 경남 지역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특성

경상남도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넓은 지리적 특성, 특히 도서산간 지역이나 교통이 낙후된 벽지에서는 물리적 고립이 심화되어 청소년들의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담 서비스나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장기적인 은둔 생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선 방향

최홍일 박사님께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제안해 주신 정책방향과 서미 본부장님의 사업 현안 및 개선방향을 보며, 모든 내용이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제언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현 지원사업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저는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32.5%에 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관리가 필수적이며,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만나보면, 이들이 이전에 상담기관이나 복지서비스를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서비스가 대부분 3개월 단위로 제한되거나 연도가 바뀌면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잦아 청소년들이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행히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회기의 제한 없이 2년 전후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기존 서비스가 더 장기적으로 지원되었다면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 따라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도 단위 운영모델 개발입니다. 경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물리적으로 고립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소 설치 등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도 단위 운영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고립·은둔 개념의 통일과 관련 법 제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립·은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수립과 실행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그리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찰된 당사자의 필수성, 그를 통한 인식개선은 절대적 필수 요소

-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이사)

토론 4

성찰된 당사자의 필수성, 그를 통한 인식개선은 절대적 필수 요소

•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이사)

1. 들어가며

자사는 만 19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은둔 청년 그중에서도 은둔이 '만성화'가 된 청년들을 위주로 평균 1년의 방문, 1.3년의 공동생활 정도까지 한 명의 당사자를 평균 2~3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둔고수 양성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회복된 당사자를 만나더라도 그들 역시 재고립과 본인의 은둔·고립 인식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로소 2년여는 소통해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궤도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을 다시 경험하며 갈등하고 멀어지고 회복하는 일련의 경험들이 쌓이면 자사에서는 '성찰된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당사자가 중요하겠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쉽지 않은 은둔·고립 분야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2. 많은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돌아보며

저 역시 과거 5년의 은둔 경험 후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국회 입법 토론회까지 연간 수십건을 K2인터내셔널코리아 시절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아마 당사자의 발언이 보다 귀한 시절이었기에 관련된 토론회 중 참여하지 않은 것이 더 드물 것입니다. 그때마다 당사자가 여러 토론 무대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장벽과 허와 실이 있다는 점을 느끼는데, 이를테면 회복이 많이 진행되어 토론에 보다 적합한 당사자가 있더라도 언론 취재, 토론회의 기사화 등에 부담을 느끼는 당사자의 특성이 작용 하는 경우라던가 섭외의 한계로 '당사자'로서의 상징성만 토론회에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최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들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당사자 출신의 법인과 같은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갖는 후속 단체의 출현, 유지되어 그들의 성찰된 답변을 들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고 고된 분야라고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은둔고수' 등 브랜드적 요소를 걷어내고 보면 힘들었던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또 그와 동시에 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도전을 받는 일이기도 하기에 개인의 삶으로 보면 그 활동 자체로 재고립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플레이어로

써 성찰된 당사자의 의견이 필요하고 양질의 의견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3.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실태조사 결과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의 2.3배를 웃돈다면 우리는 조사 방법의 고도화 필요성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이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사자의 의견에 과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도 과거 시점에 왜 은둔을 했냐고 묻는다면, ‘모른다’, ‘부모 때문에’, ‘그냥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응답했을 겁니다. 또 탈 고립을 위한 노력도 지금의 실태조사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을 최저로 응답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자격증을 더 갖춰야 한다는 강박이나, 학력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 거듭하다 관계 자본의 부족이라는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성찰해 보면 ‘부모 때문에’라는 것은 IMF 이후 가족의 붕괴, 제사 문화의 모순 등으로 생각이 확장되었고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5년이나 지속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완전 칩거처럼 연속적이지 않기에 ‘슬럼프’라는 생각에 기인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마음먹고, 스펙 좀 더 갖추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시도하다 점차 지쳐 포기하게 되고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당사자들이 가장 낮게 응답하는 ‘비슷한 사람을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심층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매몰된 상태에서 ‘왜?’라는 것을 묻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는 회복된 당사자의 입장, 종사자의 입장, 현 당사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그 ‘임팩트 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게 보다 본질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4. 성찰된 당사자의 양성

여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니 용역을 주는 경우나, 소수의 전문가가 전국 단위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소모적이라 느껴지며 누적되면 정책의 ‘인기’가 식어버리거나 변수를 만나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를 만나면 사회문제 해결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터는 많아지고 지원은 늘어가고 있지만 수년 만에 겨우 용기를 낸 당사자가 지원에 큰 의미

를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아 재고립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럼 더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접근할 만한 서비스는 더 많은 예산과 고도화된 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향됩니다.

때문에 지원의 태동기인 지금 단순히 용역을 주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당사자가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굴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결국 의뢰할 수밖에 없다면, 양성사업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면 저희의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지 자체 노하우는 큰 폭의 향상을 도모하기 힘듭니다. 자사가 미약한 자본에도 지금까지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은둔고수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다 큰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경험을 쌓아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읽어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인터뷰 등에서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악플을 달던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지 배워가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이 경험한 은둔이 전부가 아니라는 성찰을 통해 여러 점선의 기회도 생깁니다. 말해보고 정리해 보고 무대에서 발언해 봐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저 역시도 매년 어떤 강의나 토론회가 끝나면.. “아 내가 분위기를 잘못 읽었구나, 이런 발언이 좀 더 유효했을 텐데.. 그럼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보완해 봐야겠다.” 후회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갖춰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사업의 선발 과정이나 운영진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객관성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됩니다.

객관성이 보완된 당사자들이 여러 인식 개선 콘텐츠에 목소리를 내거나, 방송에 출연하여 그 자체로도 브랜딩 효과가 있으며 누군가의 롤모델로 거듭나는 순기능을 발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양성의 중요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무턱대고 방문하거나, 기존의 잘하고 있는 업체를 단순 활용하거나, 부모 교육 정도를 여러 명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 활동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이지 않고 또래 활동가 수준의 ‘서포터즈’ 활동에 그칩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서포터즈가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도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예비’ 인증을 받고,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여러 교육과 성장을 통해 달려 나갑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보다 중요하다는 방점을 찍고 보다 본격적인 예산으로

로 그들이 발언하고, 실패하고, 정책적 무대에 서 보고 그 현장성을 느껴 보다 본질적인 경험을 나눠줄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에는 경남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의 사정이 있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기조보다 문제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양성사업에 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양적인 양정보다 소수일지라도 ‘과거형’이 된 당사자라던가 ‘성찰된’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복지사의 역할의 확대, 신규 센터의 설립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일할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도 점차 고도화되고 자리를 잡겠지만 복지인재 원에는 민간단체들이 출강하고 있고 강사진 역시 현장에서 매일 배우고 있는 입장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그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는 필연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껍 측정, 인식 개선 등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이 자리의 함의는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며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생산하고 정리하기 위해 애쓰신 본원 연구진과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기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최근 몇 년간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사회적 고립 및 은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된 노력이 공공 영역에서 공고화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 정책형성기이니 만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실행되고 그것으로 굳어지면 경로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토론에서는 실태 파악 이후,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으로 더 촘촘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처럼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위험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촘촘하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기의 생활 환경은 어른들의 생활 환경보다 좁다. 아동·청소년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학교밖청소년센터가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점이나 아직 전국적으로 12개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문제와 욕구를 고려한다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시범사업도 17개 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정정책적 근거를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관련법에 담은 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부터 학교밖청소년센터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가 4개소 설치되었는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을 함께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새롭게 만들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시일이 소요되었다.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청년 지원 서비스에 비해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시행된 것에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기 지원 체계는 기존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 재교육 등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다학제적인 전문 서비스, 아웃리치, 슈퍼비전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계는 이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있어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간과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관계망의 단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장기화되고 악화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현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은 상담 쪽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전문화된 상담의 발전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고립·은둔 청소년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작은 역할과 일들, 그리고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행복동행학교」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 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상담, 활동,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기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는 학교 밖으로 나와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학교 안에도 사회적 고립 상황 속에서 은둔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이를 공식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체계와의 연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아직 학교 안에서부터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표족하게 마련되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다. 어떠한 연계가 바람직한지, 어떻게 해야 사후적인 지원이 아닌 사전적인 지원,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고 완화하는 지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 생애적인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발전 경로를 고려하되, 사후적인 프레임으로 이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예방적이고 낙인이 크지 않은 프레임과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립과 재고립, 은둔과 재은둔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부정적 경험은 이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상태 의존성이 강화된다. 한 번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그 상태로 회귀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설계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라포가 형성된 인력이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더 오래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정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및 사례 관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핵심은 양질의 인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현재 사회적 고립과 은둔 지원정책은 최후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상태를 양산하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먼저 체계적으로 만든 바 있으나, 히키코모리 상태는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며 시간이 경과되기에 경제위기에 은둔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시일이 지나 8050문제(80대 노인이 50대 히키코모리를 부양하는 문제)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후의 안전망을 공고히 만들되 학령기에서부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와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심화되어 개인의 인생에 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다양한 안전망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 경쟁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협력관계를 돌보고 적절한 역할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 등 사회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는 어쩌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사회정책의 사각지대가 만들어 놓은 현상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서는 예방적 지원, 단계적 지원, 생애주기적 지원의 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와 그 이후까지의 서비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증거기반 정책 설계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정책을 체계화시키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연결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토론 6

고립·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 유정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본 토론은 현장 구두 발표로 진행됩니다.”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a memo or report.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is area is intended for notes or a memo related to the header text.